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방안

A Study on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Young One-person Household Members' Life in Busan after COVID-19

김세현·김민경·이가현

■ 연구책임 ■

김 세 현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

■ 연구참여 ■

김 민 경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이 가 현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원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부산시의 1인가구 비율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부산의 1인가구 증가의 이면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대별 특성에 따른 분석이 필요
 - 한국에서 1인가구는 대표적인 사회취약계층이기 때문에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부산지역의 청년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한 청년 1인가구 정책이 필요
 - 1인가구는 세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와 중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에 각기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
 - 부산의 경우 청년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인구 확보를 위한 청년 1인가구 정책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청년 1인가구가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은 청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1인가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됨
 -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의 단절과 정신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실태 연구는 부족함
- 부산지역의 청년 1인가구 실태를 경험적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제안함
 - 부산 청년 1인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탐색
 - 국내외 1인가구 지원정책 현황조사
 - 코로나19가 부산 청년 1인가구에 미친 영향을 진단
 - 부산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시

○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연구범위: 2022년 기준 부산시 거주 청년(만 18~34세) 1인가구
- 연구방법: 사례연구 및 정량분석,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 부산 청년 1인가구 현황

○ 전국에서 나타나는 1인가구 증가 추세와 더불어 청년 1인가구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21년 기준 전국의 청년 1인가구는 212.2만 가구로 2015년 대비 43.6% 증가(인구총조사, 2021)
- 부산의 청년 1인가구 수는 13.3만 가구로 광역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청년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음
- 부산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부산의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구성비(27.3%)는 전국(29.6%) 보다 약간 낮은 편임

○ 부산의 청년 1인가구 수와 전체 1인가구에서 청년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5년 부산시의 청년 1인가구는 9.1만 가구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3.3만 가구로 2015년 대비 약 45.7% 증가 함
-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가구 비율의 경우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약간 감소 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전체 1인가구의 27.3%가 청년 1인가구로 나타남

○ 지역에 따라 청년 1인가구의 구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남

- 부산시의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3,620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은 부산진구와 수영구, 연제구, 서구, 해운대구, 중구, 동구이며, 남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은 사하구, 영도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북구, 남구, 사상구, 동래구로 조사됨
- 부산진구의 경우 여성 청년 1인가구의 수가 남성 청년 1인가구에 비해 2,070가구가 많았던 반면, 사하구의 경우 남성 1인가구의 수가 여성 1인가구에 비해 1,487가구가 많아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금정구의 경우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36.1% 수준이지만(인구총조사, 2020),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비는 35.8%로 부산 구/군중 가장

높은 수준임. 반면, 북구의 경우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의 비가 가장 낮은 지역(15.7%)으로 나타남

- 부산지역에서 나타나는 청년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 교육 및 거주환경, 사회문화적 특성 및 계층적 요소들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함
 - 주요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는 금정구, 부산진구, 남구 역시 노년 1인가구에 비해 청년 1인가구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음
 - 강서구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의 영향으로 청년 남성 1인가구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유추됨

■ 1인가구 지원정책 현황

- 해외의 경우 가구형태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사회적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외로움 및 고독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영국정부는 2018년 1월에 조 콕스 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외로움 대응부서를 설립
 - 외로움은 특정 연령 또는 사회적 약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사회문제임을 강조
 - 국가적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사회적 관계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
 - 외로움 문제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정부 정책의 실천, 실증적이고 과학적 정책 대안 마련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접근
 - 외로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가족, 개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정부는 2021년 2월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해 내각을 신설함
 - 내각 관방에 고독·고립 대책실을 설치하여 심각해지는 사회적 불안, 사회적 고독·고립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 고독·고립대책실은 기존 중앙부처가 수행해오고 있던 고독·고립대책 관련 정책 총괄과 민간협력 사업을 수행
 - 고독·고립 대책의 기본방침
 - 고독·고립에 관한 지원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기 쉬운 사회를 조성
 - 상황에 따른 상담 지원과 정책 연결

- 사람 간의 연결이 체감되는 지역환경 조성
 - 비영리 단체의 활동 지원 및 관·민·비영리 단체 간 연계 강화
-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6월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I)’을 발표
-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빈곤 및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하는 취약 1인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종합적 정책 대응을 위해 1인가구 생활기반(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별 5대 분야 정책 과제와 1인가구 실태조사 강화 방안을 제시
-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현상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1인가구가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형태임은 분명하나, 모든 1인가구가 동일하게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님
 - 현재 국내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세대 및 경제·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1인가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 및 고독사 문제에 주목하면서 조례를 통해 다양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수행
- 2022년 5월 기준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28건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제정된 조례는 239건으로 총 267건의 조례가 제정됨
 - 각 조례가 담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수행되고 1인가구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탐색
 - 식사문제 해결: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식습관 관리임. 이는 많은 1인가구 구성원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 관계 형성: 사회적 고립이 염려되는 1인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음.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모임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이 제안되는 동시에, 공유 공간 구축을 통한 관계 형성 방안 역시 나타나고 있음
 - 장례: 장례 토픽은 고독사 관련 지원 사업으로 고독사가 임박하거나, 발생한 뒤 수행해야 할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응급상황 대응: IT기술을 활용하여 1인가구 구성원의 생활 활동을 파악하고, 응급 및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분류됨
 - 고독사 예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험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이 분류됨. 특히 정부, 지역, 민간영역 연계가 강조되고 있음
 - 방문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리사를 파견함으로써 노인들의 위험에 대비하는 활동들이 나타남. 앞선 고독사 예방토픽과는 다르게 관리사를 통한 직접적인 방문지원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심리상담: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들이 분류됨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정부의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토대로 부산지역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4대 분야(소득·돌봄, 안전, 주거, 생활·건강)별 생활밀착형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
 -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에는 정책지원방안 이외에도 1인가구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청년 1인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수립·시행되지는 않음
- 서울시는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범죄·고립·주거 분야의 안심정책을 추진
- 서초구를 시작으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의 지원센터 운영

■ 부산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

-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부산시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
 - 조사대상
 - 부산지역에 거주중인 만 18~34세 청년 1인가구 1,000명
 - 지역, 성별, 연령에 비례한 할당 표집 수행
 - 1인가구 기준: 혼자서 살립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 조사기간: 2021년 5월 9일 ~ 2022년 6월 17일(6주)

- 1인가구의 삶, 주거, 경제생활, 건강,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 안전, 결혼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
- 부산 청년 1인가구의 특성
 -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노년 1인가구와 달리 부산 거주 청년 1인가구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청년 1인가구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수준을 중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기대 역시 긍정적인 편임
 - 청년세대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안정이 요구됨
 - 고용, 훈련, 진학을 하지 않는 니트(NETs) 청년의 경우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1인가구를 구성하지 못함
 - 1인가구를 구성하였더라도 졸업이나 실직과 같은 개인의 여건이 변화하게 된다면 기존의 가족에게 돌아가기도 함
 - 사회안전망 제공이 시급한 노년 1인가구와 달리 청년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청년 1인가구는 노년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 98% 이상의 응답자가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
 - 청년 1인가구는 1인가구가 가지고 있는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음
 - 다수의 청년 1인가구는 다른 1인가구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
 -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가하며, 앞으로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은 감소함
 - 타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더욱 높음
 - 부산출신 1인가구의 21.1%, 울산·경남 출신 1인가구의 18.3%가 1인가구 구성 후 사회적 관계가 축소/단절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기타지역 출신 1인가구의 경우 33.6%가 사회적 관계의 축소/단절을 경험하였다고 응답
 - 부산 출신 1인가구에 비해 울산·경남 출신 및 기타지역 출신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편

- 부산 출신 1인가구에 비해 기타지역 출신의 정서적 불안감이 높은 편
- 타 지역에서 이주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1인가구 구성 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지원정책이 주민등록상 1인가구 구성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타 지역에서 이주한 청년들의 전입 신고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가 부산거주 청년 1인가구의 삶에 미친 영향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청년 1인가구에 미친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한 편
 - 청년 1인가구의 24.8%가 사회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학생임
 - 응답자의 67.8%가 임금근로자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5.3%에 불과하여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1인가구 유지를 포기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코로나19는 청년 1인가구에게 문화·여가생활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청년 1인가구의 86.4%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여가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고 응답
- 성별에 따라 코로나19가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이 다름
 - 여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더욱 단절되었다고 느꼈으나, 남성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더욱 확장되었다고 응답
 - 관계지향적인 여성에게 코로나19가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남성의 경우 코로나19 나타난 온라인 중심의 관계성 형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

■ 부산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과제

○ 청년의 특성에 맞춘 정책 방향성 설정이 필요

- 부산 거주 청년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표적 사회 취약계층인 노년 1인가구와는 다른 형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사회적 고립은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은 사회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관계적 측면의 사회고립 예방정책의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
 - 1인가구 정책이 1인가구의 전환 및 확산을 장려·유도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1인가구 지원정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
 - 청년의 생애주기 및 사회구조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취약계층만이 아닌 청년 1인가구 모두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이 요구됨
 - 청년시기에 구성된 1인가구는 영구적 1인가구가 아닌 만큼 청년 1인가구 구성을 장려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이 필요
 - 부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인가구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편적 청년 지원정책에 1인가구 관련 정책들을 다수 포함시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성별 및 주거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 밀집 지역(금정구, 부산진구, 수영구, 남구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주요 행위자 간 정책 네트워크 재구조화가 요구됨
 - 현재 부산의 1인가구 지원정책은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특성상 다인가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
 - 노년 1인가구의 경우 한국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반면,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삶의 질 측면에서 노년 1인가구 보다는 보다 여유로운 상황에 놓여 있음
 - 효율적인 부산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중심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청년층의 경우 노년층에 비해 지역사회를 통한 접근이 어려운 만큼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됨
- 연구에서 제시하는 청년 1인가구 지원 방안 및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음

〈표 1〉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목표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청년중심의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의 청년 1인가구 정책 반영 - 주요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청년 1인가구 정책 개발
	부산 청년플랫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정책 접근성 강화	청년 개인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계획	부산이주 1인가구를 위한 웰컴 세트 제공	타 시·도지역에서 부산으로 전입하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지원 및 정보 제공
	1인가구 워케이션 지원	- 공유공간 조성을 통해 기업의 업무공간 및 숙박공간을 제공하여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 - 국내 대학 학점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산살기 지원사업 수행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설치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의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운영 1인가구 특성 및 개인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 개별 1인가구의 상황에 맞는 제도와 정책,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예비 및 신규 1인가구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	독립 계획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사업 수행
	사회적 고립 청년 1인가구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	고립 1인가구 발굴을 위한 주요 행위자 간 네트워크 구성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청년 1인가구 지원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참여, 여행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
1) 연구범위 및 방법	2
2) 연구방법	2
3. 주요 연구내용	3
제2장 부산 청년 1인가구 현황	4
1. 청년 1인가구의 증가	4
1) 전국 청년 1인가구 현황	4
2) 부산 청년 1인가구의 증가	5
2. 부산 청년 1인가구 현황	6
1)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청년 1인가구	6
2) 노년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의 비교	7
3. 부산 청년 1인가구 현황 및 시사점	9
제3장 1인가구 지원정책 현황	10
1. 해외 1인가구 지원정책	10
1) 영국	10
2) 일본	17
2. 국내 1인가구 지원정책	21
1)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21
2)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	23
3) 제1차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27
4)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29
3. 선행연구 정리 및 시사점	32

제4장 부산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	34
1. 설문조사 개요	34
1) 조사목적	34
2) 조사방법 및 기간	34
3) 조사 내용	35
4) 응답자 특성	35
2. 설문조사 결과	37
1) 1인가구의 삶	37
2) 주거 및 경제	47
3) 건강	52
4)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55
3.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57
1) 부산 청년 1인가구의 특성	57
2)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	58
3) 코로나19가 부산거주 청년 1인가구의 삶에 미친 영향	58
제5장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과제	60
1.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방향	60
1) 청년의 특성에 맞춘 정책 방향성 설정	60
2)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61
3)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62
4) 주요 행위자 간 정책 네트워크 재구조화	62
2. 부산시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64
1)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65
2)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계획	71
3)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설치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74
4)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청년 1인가구 지원	79
3. 연구 요약 및 시사점	80
1) 부산 청년 1인가구의 특성	80
2) 성공적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81
Abstract	83
참고문헌	85
부록	88
1. 설문지	88
2. 부산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 빈도표	103

표 목차

〈표 2-1〉 광역지자체별 1인가구 수 및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구성비	4
〈표 2-2〉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청년 1인가구 현황	7
〈표 3-1〉 영국 외로움 정책의 부처별 주요 내용	11
〈표 3-2〉 일본의 고독·고립 대응 관련 부처별 정책 내용	18
〈표 3-3〉 1인가구 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3
〈표 4-1〉 조사내용	35
〈표 4-2〉 응답자 특성	36
〈표 4-3〉 주민등록상 1인가구 구성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40
〈표 4-4〉 전반적 생활수준 및 앞으로의 생활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45
〈표 4-5〉 경제적 측면에서 가족(부모)과의 관계	46
〈표 4-6〉 주거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50
〈표 4-7〉 현재 거주 주택 마련 방법(다중응답)	51
〈표 4-8〉 성별에 따른 청년 1인가구의 식습관 차이	53
〈표 4-9〉 성별에 따른 청년 1인가구의 운동습관 차이	54
〈표 4-10〉 정서적 불안감에 대한 회귀분석	55
〈표 4-11〉 코로나19 시기 동안의 고용상태 및 변화	56
〈표 4-12〉 코로나19 시기 동안의 문화·여가생활 변화	56
〈표 4-13〉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시기 동안의 사회적 관계 변화	57
〈표 5-1〉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64
〈표 5-2〉 부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 현황	7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구성도	3
〈그림 2-1〉 부산 청년 1인가구 수 및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구성비	5
〈그림 2-2〉 지역별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 비교	8
〈그림 3-1〉 영국의 외로움 극복 전략의 주체와 역할	12
〈그림 3-2〉 옥스퍼드셔의 토크숍(Talking Shop)	14
〈그림 3-3〉 런던의 CRC(Community Resources for Change)	15
〈그림 3-4〉 영국 우스터셔 PEOPLE LIKE US (PLUS)	16
〈그림 3-5〉 도키와다이라단지 이키이키살롱	19
〈그림 3-6〉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의 안심시스템 및 거리의 텃마루 사업 개요	20
〈그림 3-7〉 1인가구 대응 정책 기본방향	22
〈그림 3-8〉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4
〈그림 3-9〉 연도별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및 워드클라우드 ..	25
〈그림 3-10〉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관련 조례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26
〈그림 3-11〉 강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	30
〈그림 3-12〉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31
〈그림 3-13〉 서초구 1인가구 지원센터	32
〈그림 4-1〉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37
〈그림 4-2〉 혼자 생활하는 이유	38
〈그림 4-3〉 앞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가구 형태	38
〈그림 4-4〉 주민등록상 1인가구 구성 여부	39
〈그림 4-5〉 1인가구로 살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41
〈그림 4-6〉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불안감	42
〈그림 4-7〉 출신지역별 1인가구 구성 이후 사회적 관계 변화	43
〈그림 4-8〉 다른 1인가구와의 교류 필요성	43
〈그림 4-9〉 거주 주택유형 및 면적, 취사공간 분리여부	47
〈그림 4-10〉 부산 청년 1인가구의 주택 소유형태 변화(2017년, 2022년)	48
〈그림 4-11〉 현 주거지 선택 이유	49
〈그림 4-12〉 지역별 주거비 부담	51
〈그림 4-13〉 주관적 신체·정신건강	52
〈그림 5-1〉 사회적 고립 개념의 구성	61
〈그림 5-2〉 부산시 1인가구 지원 추진체계	63
〈그림 5-3〉 부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가구 지원사업	66

〈그림 5-4〉 부산광역시 청년정책플랫폼 청년G대 홈페이지	68
〈그림 5-5〉 부산시의 1인가구 지원페이지 및 1인가구 종합정보지	69
〈그림 5-6〉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및 1인가구 지원정책 검색 결과	70
〈그림 5-7〉 1인가구 전입청년 웰컴박스 및 전입청년 맞춤형 안내 지도	72
〈그림 5-8〉 중국종합사회복지관의 고립가구 발견 전략	78
〈그림 5-9〉 청주산남2 마이홈센터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체계	78

제 1 장

연구개요

01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부산시의 1인가구 비율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부산의 1인가구 증가의 이면에는 혼인율 감소 및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에서부터 청년세대의 비혼주의 확산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취업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대별 특성에 따른 분석이 필요(김세현, 2021)
 - 한국사회에서 1인가구는 대표적인 사회취약계층이기 때문에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부산지역의 청년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한 청년 1인가구 정책이 필요
 - 1인가구는 세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와 중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에 각기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
 - 부산의 청년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인구 확보를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
 -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청년 1인가구가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은 청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1인가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됨

-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함(김태완·이주미, 2021)
- 1인가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의 단절과 정신적 어려움을 일반 가정에 비해 더욱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성미애·진미정·장영은·손서희, 2020)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실태 연구는 부족함

2) 연구목적

- 부산지역의 청년 1인가구 실태를 경험적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제안
-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부산 청년 1인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탐색
 - 국내·외 1인가구 지원정책 현황조사를 통한 부산지역의 과제 발굴
 - 코로나19가 부산 청년 1인가구에 미친 영향을 진단
 - 부산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시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2022년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만18~34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연구방법

- 사례연구
 - 해외 1인가구 지원정책 사례 탐색 및 분석
 - 중앙정부 및 부산시의 1인가구 지원정책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 텍스트 및 토픽모델링 분석
 -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사례 분석
- 정량분석

- 부산 1인가구 및 청년 1인가구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
- 부산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전문가 등 관계자 인터뷰
 - 부산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해석
 - 청년 1인가구 지원 방안 도출의 기초

3. 주요 연구내용

- 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대상, 연구 방법론을 제시
- 2장은 부산시의 ‘1인가구 현황’ 및 ‘청년 1인가구 현황’을 정리
- 3장은 국내·외의 1인가구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타 지역의 1인가구 지원정책 실태를 제시
- 4장은 부산 청년 1인가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청년 1인가구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
- 5장은 부산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부산시 정책 방안을 제안

구분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제1장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방법 및 연구내용	
제2장 부산 청년 1인가구 현황	- 부산시 청년 1인가구 현황 - 노년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 비교	>>> 기초통계 분석
제3장 1인가구 지원정책 현황	- 해외 1인가구 지원정책 - 국내 1인가구 지원정책	>>> - 선행연구 검토 - 타 시도 자료 분석 - 지원조례 텍스트 분석
제4장 부산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	- 부산시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 -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도출	>>> - 설문조사(1,000명) - 연구진 검토회의 - 전문가 자문
제5장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과제	-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방향 - 부산시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 전문가 자문 - 연구진 회의

〈그림 1-1〉 연구 구성도

제 2 장

부산 청년 1인가구 현황

코로나 19 이후 부산지역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방안

1. 청년 1인가구의 증가

1) 전국 청년 1인가구 현황

- 전국에서 나타나는 1인가구 증가 추세와 더불어 청년 1인가구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21년 기준 전국의 청년 1인가구는 212.2만 가구로 2015년 대비 43.6% 증가(인구총조사, 2021)

〈표 2-1〉 광역지자체별 1인가구 수 및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구성비

단위: 가구, %

지역	청년 1인가구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비	지역	청년 1인가구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비
전국	2,122,487	29.6%	경기도	444,515	28.8%
서울특별시	605,308	40.6%	강원도	59,825	24.4%
부산광역시	133,100	27.3%	충청북도	73,596	29.2%
대구광역시	87,199	26.7%	충청남도	91,068	27.8%
인천광역시	93,512	26.3%	전라북도	67,690	24.5%
광주광역시	67,591	31.8%	전라남도	46,437	16.9%
대전광역시	99,243	41.2%	경상북도	93,942	22.5%
울산광역시	32,520	24.4%	경상남도	87,639	19.5%
세종특별자치시	19,532	42.7%	제주특별자치도	19,770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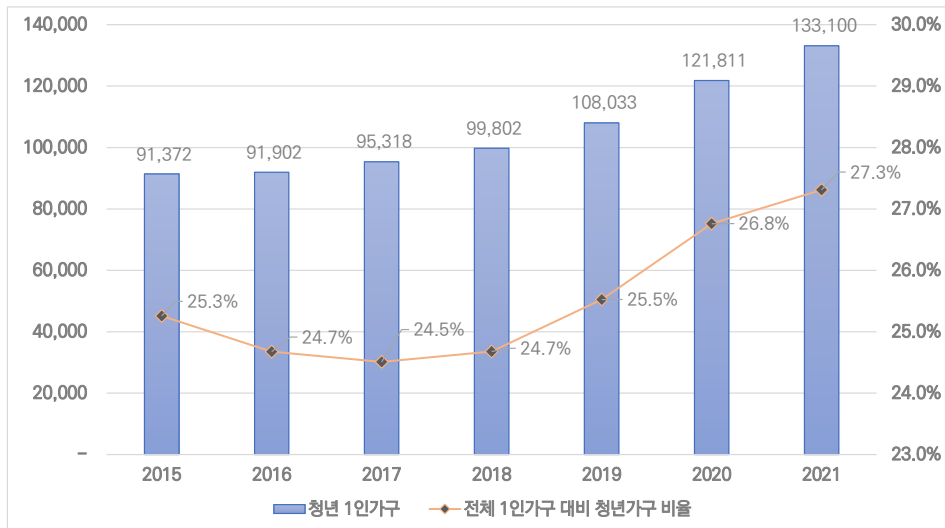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주: 가구주 연령 34세 이하 기준

- 부산의 청년 1인가구 수는 13.3만 가구로 광역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청년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음
- 부산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부산의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구성비(27.3%)는 전국(29.6%) 보다 약간 낮은 편임

2) 부산 청년 1인가구의 증가

- 부산의 청년 1인가구 수와 전체 1인가구에서 청년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5년 부산시의 청년 1인가구는 9.1만 가구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3.3만 가구로 2015년 대비 약 45.7% 증가 함
 -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비율의 경우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전체 1인가구의 27.3%가 청년 1인가구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주: 가구주 연령 34세 이하 기준

〈그림 2-1〉 부산 청년 1인가구 수 및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구성비

2. 부산 청년 1인가구 현황

1)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청년 1인가구

○ 지역에 따라 청년 1인가구 수 및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부산진구의 경우 가장 많은 수(20,266)의 청년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금정구(13,149), 남구(11,300), 수영구(8,940), 해운대구(8,844) 순으로 나타남
- 청년 1인가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로 단 2,633가구만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후 동구(2,909), 영도구(3,514), 강서구(3,547), 기장군(3,668) 순으로 조사됨
- 전체 1인가구 중 청년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금정구가 가장 높았으며(35.8%), 부산진구(34.4%), 남구 및 수영구(32.3%) 순임. 반면, 북구의 경우 전체 가구의 15.7%만이 청년 1인가구로 나타났으며, 영도구(18.4%), 동구(18.8%), 해운대구(19.7%) 순으로 비율이 낮음

○ 지역에 따라 청년 1인가구의 구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남

- 부산시의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3,620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은 부산진구와 수영구, 연제구, 서구, 해운대구, 중구, 동구이며, 남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은 사하구, 영도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북구, 남구, 사상구, 동래구로 조사됨
- 부산진구의 경우 여성 청년 1인가구의 수가 남성 청년 1인가구에 비해 2,070가구가 많았던 반면, 사하구의 경우 남성 1인가구의 수가 여성 1인가구에 비해 1,487가구가 많아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금정구의 경우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36.1% 수준이지만(인구총조사, 2020),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비는 35.8%로 부산 구/군중 가장 높은 수준임. 반면, 북구의 경우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의 비가 가장 낮은 지역(15.7%)으로 나타남

〈표 2-2〉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청년 1인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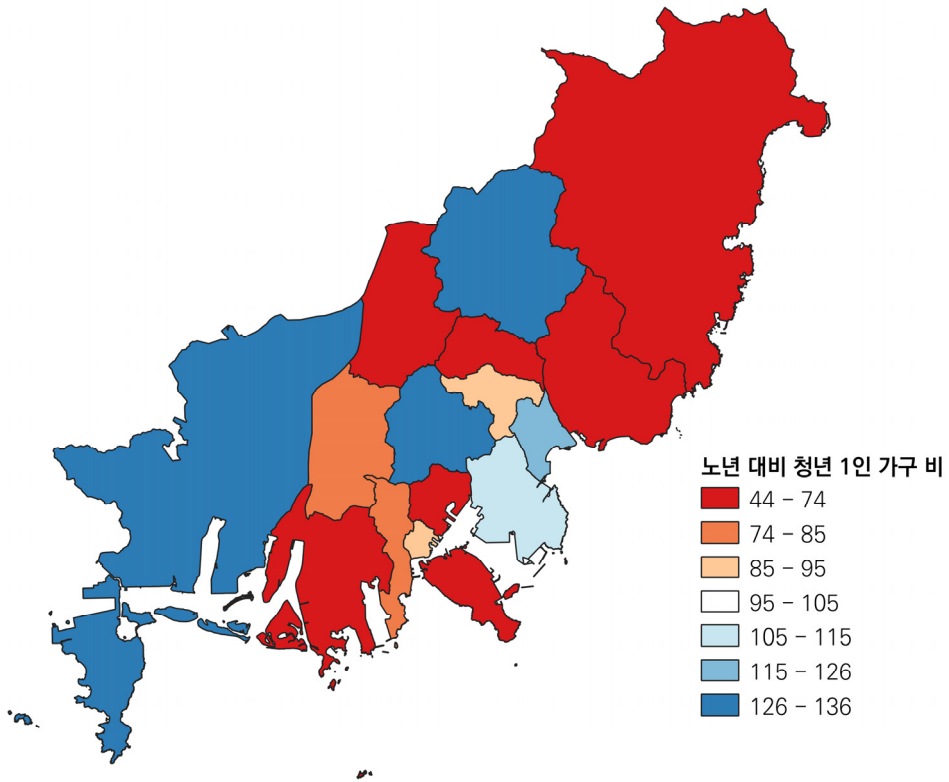
단위: 가구, %

구/군	청년 남성 1인가구	청년 여성 1인가구	청년 1인가구 (합계)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비
중구	1,245	1,388	2,633	26.3
서구	2,093	2,653	4,746	25.8
동구	1,434	1,475	2,909	18.8
영도구	2,484	1,030	3,514	18.4
부산진구	9,098	11,168	20,266	34.4
동래구	3,037	2,969	6,006	20.7
남구	5,965	5,335	11,300	32.3
북구	2,822	2,103	4,925	15.7
해운대구	4,259	4,585	8,844	19.7
사하구	5,129	3,642	8,771	22.0
금정구	7,298	5,851	13,149	35.8
강서구	2,394	1,153	3,547	26.5
연제구	2,979	3,659	6,638	25.5
수영구	4,041	4,899	8,940	32.3
사상구	3,803	3,279	7,082	22.9
기장군	2,198	1,470	3,668	19.9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2) 노년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의 비교

- 청년의 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노년 1인가구와의 비교를 진행
 - 부산 거주 청년 1인가구를 노년 1인가구의 수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강서구와 부산진구, 금정구, 수영구, 남구의 경우 청년 1인가구의 수가 노년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노년 1인가구의 수가 더욱 많았음
 - 노년 대비 청년 1인가구 비율이 가장 큰 북구의 경우 노년 1인가구가 청년 1인가구에 비해 2.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주: 노년 대비 청년 1인가구비, (20~34세 1인가구 / 65세 이상 1인가구) X 100

〈그림 2-2〉 지역별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 비교

- 부산지역에서 나타나는 청년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 교육 및 거주환경, 사회문화적 특성 및 계층적 요소들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함
 - 주요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는 금정구, 부산진구, 남구의 경우 노년 1인가구에 비해 청년 1인가구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음
 - 강서구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의 영향으로 청년 남성 1인가구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유추됨

3. 부산 청년 1인가구 현황 및 시사점

-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
 - 1인가구는 대표적 사회취약계층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임
 - 부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지역적 상황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지역 및 연령, 성별 특성에 따라 1인가구 분포의 지역적 편차가 존재
 - 노년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비를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 밀집 지역과 노년 1인가구 밀집지역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남
 - 청년인구수 및 청년 1인가구 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금정구와 부산진구, 수영구, 남구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청년 1인가구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나 연제구, 부산진구, 수영구의 경우 청년 여성 1인가구가 더 많았던 반면, 영도구와 강서구, 기장군, 사하구의 경우 청년 남성 1인가구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 1인가구의 분포가 다채롭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상황 및 연령, 성별과 같은 계층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요구됨
 -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가 각기 다른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거주지역 역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의 역할 고려가 요구됨

제 3 장

1인가구 지원정책 현황

1. 해외 1인가구 지원정책

- 해외의 경우 가구형태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사회적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외로움 및 고독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1인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단절 및 고립에 취약하며, 그로 인한 외로움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해외의 외로움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1) 영국

- 영국정부는 2018년 1월에 조 콕스 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외로움 대응부서를 설립¹⁾
 - 외로움은 특정 연령 또는 사회적 약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사회문제임을 강조
- 보고서 발표 후 후속조치로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DCMS)를 외로움 정책을 전담하는 주관부처로 지정하고, DCMS 내 스포츠·관광·문화유산·시민사회 차관을 외로움 차관(Minister for Loneliness)으로 겸직 임명함(정보람·윤소영·이성우, 2022)

1) UK Government.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2018.10.

-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치료와 같은 의학적 접근 보다는 개인 간 소통, 지역사회와 개인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 공동체성의 회복 등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춤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부(DCMS)는 외로움 정책실행 근거확보 및 평가를 담당하면서 유관 기관 간 협업 계획을 수립

〈표 3-1〉 영국 외로움 정책의 부처별 주요 내용

부처	주요 내용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 외로움 퇴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외로움 퇴치와 관련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증대
통계청	• 외로움 수치, 원인,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지원
기업·에너지·산업 전략부	• 더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의 사회적 웰빙과 외로움 극복을 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사회복지부, 국립보건서비스	• 국립보건요로서비스 장기계획에 외로움 퇴치 전략을 반영, '사회적 처방' 사업 실행 개선 및 확대
이민국, 국립 우체국	• 특정지역 내 우편부들이 외로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제공했던 돌봄서비스인 'call and check' 사례를 바탕으로 돌봄과 관련된 시범 사업계획 수립 및 서비스 확대
교통부	• 잉글랜드 지역 내 7개 모빌리티 센터가 외로움이나 사회적 연결 부족의 신호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제고 등 교통 계획 수립 시 외로움 퇴치를 적극 고려
교육부	•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가 접근 가능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수립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국	• 주거 계획 수립 시 외로움 퇴치를 주요 의제로 고려

자료: 정보람·윤소영·이성우(2022).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국가적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사회적 관계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
- 외로움으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취약지점들을 가족·친구·지역사회가 서로 지원하는 사회
 - 기관과 개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적 요소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
 - 모든 사회 구성원이 외로움에 대해 낙인이나 수치심을 가지지 않음으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

○ 외로움 문제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정부 정책의 실천, 실증적이고 과학적 정책 대안 마련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접근(조근식, 2020)

- 사회적 분위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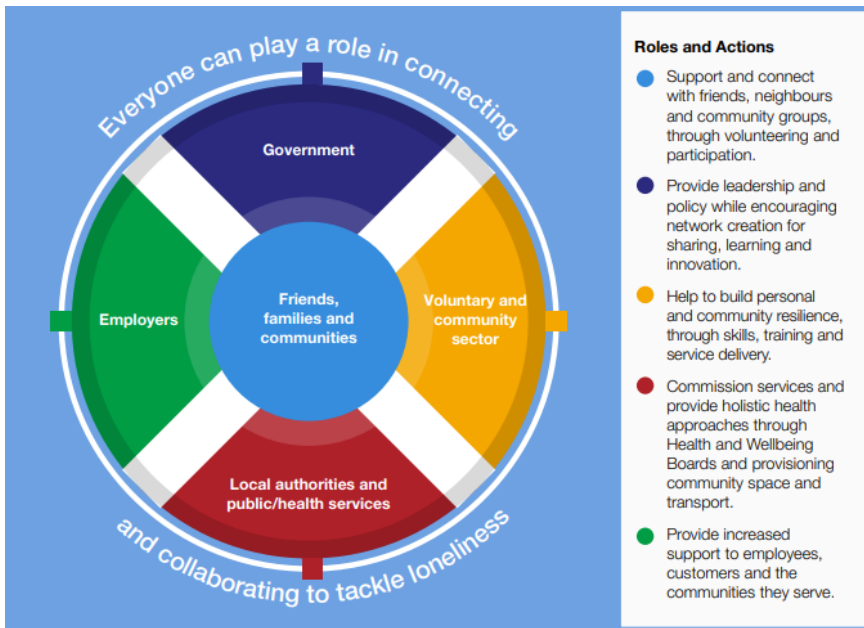
- 국가담론을 바탕으로 외로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해소
- 누구나 외로움에 대해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정부 정책의 실천

-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정부의 정책 실행이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 및 외로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독려
-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추진
- 시민사회 중심의 협력 활동 지원 강화

-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대안 마련

- 외로움의 발생 기제를 파악하고 개인적·사회적 영향력을 검증
- 정책 효과성 측정 및 성공사례 발굴
-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객관적 정보 제공



자료: UK Government(2018.10.).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그림 3-1〉 영국의 외로움 극복 전략의 주체와 역할

- 외로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가족, 개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 중앙정부
 - 국가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정책 도입
 - 정책 수립 및 조직,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제시
 - 지방정부, 보건 및 기타 공공서비스
 - 지역사회의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 계획과 외로움 해결 방법을 고려
 -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
 - 각 부문과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개선
 - 기업
 - 직원들 간 관계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복지 실현
 - 시민사회(자원 봉사)
 - 통합되고 결속력 있는 공동체 구성
 - 사람들과 지역사회에서 외로움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
 - 개방적 공동체 형성
 - 가족, 친구, 공동체가 서로 중첩되는 개방적인 의사결정구조가 필요
 -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친구 및 가족, 이웃을 서로 연결하고 탄력성을 쌓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코로나19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발생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에 Tackling Loneliness Network 실행 계획을 수립함²⁾
 - Tackling Loneliness Network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으로 영국의회, BBC, 프리미어 리그, 페이스북, ITV, 영국 적십자사, 조 콕스 재단, 맨체스터 박물관, 자선단체 등 7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한 정부 및 전문 자선 단체, 기업 네트워크 임
 - Tackling Loneliness Network 는 2021년 주요 목표로 ① 청년층 외로움 해소 ② 노년층 외로움 해소 ③ 외로움 해소를 위한 지역기반의 접근 ④ 디지털 포용을 제시함

2) UK Government. Emerging Together: the Tackling Loneliness Network Action Plan, Policy paper, 2021.5.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merging-together-the-tackling-loneliness-network-action-plan/emerging-together-the-tackling-loneliness-network-action-plan#theme1>

(1) 옥스퍼드셔 토크숍(Talking Shop)

- 토크숍이 위치한 옥스퍼드셔의 샌포드(Oxfordshire Sandford)지역은 경제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다수의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음
- 토크숍은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
 - 2011년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주 중 시장 운영
 - 2016년에 커뮤니티 카페, 상점 및 지역 허브로 재탄생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모이는 중요한 거점으로 작동
- 토크숍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형성은 물론 정신건강 인식 교육, 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함



자료: (원) Plunkett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plunkett.co.uk/talking-shop-oxfordshire/>
 (오) UK Government.(2020) Loneliness Annual Report-The first Year

〈그림 3-2〉 옥스퍼드셔의 토크숍(Talking Shop)

(2) 런던 CRC(Community Resources for Change)

- 런던 자치구 바킹(Barking) 및 다게넘(Dagenham) 주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종교 기반의 자원봉사 단체
- 지역 문제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의 자발적 봉사자 그룹 활동 수행
- 현재 커피숍과 커뮤니티 드롭 인 센터를 포함한 일련의 사회적 네트워킹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 참여자 2/3가 사회적 약자로 구성

-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외로움, 낮은 자신감, 열악한 정신 건강, 빈곤, 언어 및 학습 장벽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있음
- CRC를 통해 자원봉사를 하고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참여자에게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제공하고 수혜자 간의 고립감을 감소시킴



자료: (원) LifeLine community resources 홈페이지. <http://communityresources.co.uk/>
(오) UK Government(2020). Loneliness Annual Report-The first Year

〈그림 3-3〉 런던의 CRC(Community Resources for Change)

(3) 우스터셔(Worcestershire) PEOPLE LIKE US(PLUS) ³⁾

- People Like Us(이하: PLUS)는 우스터셔 전역에서 외로움이나 고립을 겪고 있는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 서비스
 - PLUS는 외로움을 퇴치하고 우스터셔 성인과 지역 사회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을 장려
 - 자선단체(Worcester Community Trust, Simply Limitless, Onside)와의 협업을 통해 주요 프로그램을 제공
- 외로움과 고립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훈련된 전문 자원 봉사자를 1:1로 연결하여 지원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1:1로 지원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더 활동적이며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Worcestershire: the benefits of a dedicated loneliness service. <https://www.local.gov.uk/case-studies/worcestershire-benefits-dedicated-loneliness-service>. 2021.10.18.

Onside 홈페이지. <https://www.onside-advocacy.org.uk/plus>

○ PLUS팀의 지원 절차

- PLUS팀 구성원이 외로움·고립을 겪는 해당자에게 연락하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
- 해당자의 자격 심사 후 팀 구성원의 방문을 통해 서비스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의
- 전문자원봉사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 대화를 기반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
 - 각 개인의 현재 상황에 따른 활동 및 참여 기회 제시
 -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기를 원하는 방식 확인
 - 이외의 다른 지원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추천

○ 지원에는 신뢰 구축을 위한 멘토링 및 코칭, 정보 제공, 활동 동반, 교육 또는 자원 봉사와 같은 기회 탐색, 상호 및 동료 지원 기회 제공이 포함됨

- PLUS가 제공하는 지원 기간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6개월을 넘지 않음
 -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유연성이 존재
 - 개인의 상황 변화로 인한 다른 지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종료 이후 6개월 동안 추적 조사 후 후속 조치를 취함



자료: Simply Limitless 홈페이지. <https://www.simply-limitless.org/>

〈그림 3-4〉 영국 우스터셔 PEOPLE LIKE US (PLUS)

2) 일본

- 일본정부는 2021년 2월12일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해 내각을 신설함
 - 내각 관방에 고독·고립 대책실을 설치하여 심각해지는 사회적 불안, 사회적 고독·고립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 사회적 고립 및 자살예방과 관련된 정책은 후생노동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소비자청, 총무성, 내각관방 등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 중
 - 고독·고립대책실은 기존 중앙부처가 수행해오고 있던 고독·고립대책 관련 정책 총괄과 민간협력 사업을 수행
- 고독·고립 대책의 기본방침⁴⁾
 - 고독·고립에 관한 지원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기 쉬운 사회를 조성
 - 고독·고립 실태 파악, 데이터 및 학술연구 축적, 사회적 고립의 예방 관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 검토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 정보 전달
 - 고립상황 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고립 당사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상황에 따른 상담 지원과 정책 연결
 - 상담지원 체제 정비: 각종 지원제도들을 연계한 포괄적인 상담지원, 전화·SNS를 활용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다원적인 상담지원, 다양한 사람들이 관여하는 동시에 전문성도 발현될 수 있는 발전적인 상담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
 - 인재육성 등의 지원: 인재 지원을 통해 상담원 확보 및 육성, 자질 향상에 기여
 - 사람 간의 연결이 체감되는 지역환경 조성
 - 거처 확보: 다양한 각종 공간 확보를 통해 주요 행위자 간 연결의 장을 효과적으로 운영
 - 아웃리치(outreach)형 지원체제 구축: 당사자나 가족 등 주변인의 의향, 개인 사정을 고려한 지역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 보험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 의료기관 및 보험기관을 통한 예방건강 조성 추진 등 이른바 사회적 처방을 활용하여 위험에 대응

4) 孤独·孤立対策推進会議(2021). 孤独·孤立対策の重点計画 概要, 内閣官房 孤独·孤立対策担当室, https://www.cas.go.jp/jp/seisaku/kodoku_koritsu_taisaku/index.html

- 지역 포괄적 지원체제 추진: 지역 관계자가 연계·협력하여 당사자를 중심으로 포괄적 지원체제를 구축
- 비영리 단체의 활동 지원 및 관·민·비영리 단체 간 연계 강화
 - 고독·고립 대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 활동에 대한 세심한 지원
 - 비영리 단체와의 소통을 추진하고 연계를 위한 플랫폼을 형성

〈표 3-2〉 일본의 고독·고립 대응 관련 부처별 정책 내용

부처	정책 내용
후생노동성	• 지역 내 유대강화: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체제 정비 • 자살방지: SNS활동 등을 포함한 상담지원체제강화 및 지원정보 검색 사이트 활용 등 • 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 자립상담지원기관 운영을 비롯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진행 •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지원: 히키코모리 본인 혹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을 진행 • 고령자 간호·예방·돌봄: 고령자를 통한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 등 • 어린이 돌봄: 어린이식당 등의 기관과 제휴하여 어린이 돌봄 강화, 어린이 생활 및 학습지원 등
법무성	• 민간봉사자에 의한 형무소 출소자 지원(46.7억엔), 어린이·여성·외국인 인권문제 해결(35.5억 엔) 등의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독·고립에 관한 인권상담 및 증진에 방점을 둠
문부과학성	• 어린이·학생의 자살예방(도움요청 교육)(비예산사업), 왕따·따돌림 대책 및 등교거부지원사업(79.8억 엔), 스쿨 소셜네트워크 활용사업 및 스쿨 카운슬러 활용사업(77.1억엔), 학생 멘탈케어지원(비예산사업) 등의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및 학생관련 고독·고립대책에 방점 둠
소비자청	• 지방소비자 행정강화 교부금(17.5억엔), 고독·고립에 기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계발사업(17.5억엔) 등의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독·고립에 의한 소비피해방지에 방점을 둠
총무성	• 행정상담(8.0억엔), 지역공무원 멘탈헬스 대책 지원(비예산사업), 디지털 활용 지원 추진사업(16.7억엔) 등 고독·고립에 관한 상담 및 정책시행 기반 마련 사업에 방점을 둠
내각관방	• 고독·고립의 실태파악에 관한 전국조사(0.4억엔), 고독·고립 대책용 홈페이지 개선(0.2억엔), NPO법인 등과의 제휴에 요하는 조사경비(0.4억엔)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범부처 사업으로의 확장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됨

자료: 정보람·윤소영·이성우(2022).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도키와다이라단지 고독사 제로운동

- 2005년 치바현 마츠도시 도키와다이라단지에서 고독사를 방지할 대책으로 '고독사 제로작전'이 시작됨
 - 사회복지협의회, 민생위원, 자치회 등 지역조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담당 의사의 연락망 등이 가입된 '안심등록카드'를 정비하고 단지 내 빈 점포를 활용해 고령자들에게 '교류의 장' 제공
 - 경찰과의 협력관계 강화, 신문보급소 및 열쇠 전문점과의 협력체계 마련 등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 월 1회 도키와다이라(常盤平) 자치회보 발행과 주민의 인간관계 만들기를 위한 인사하기 운동, '이키이키살롱(いきいきサロン)' 운영, 상담창구 개설, 안부확인(이웃끼리 서로 보살핌, 방문, 전화 확인 등), 고독사에 대한 계몽활동 등을 실시(이미애, 2013)



자료: 健康長寿ネット. 地域ぐるみで進める「孤独死ゼロ作戦」! (千葉県松戸市常盤平団地), 2020.0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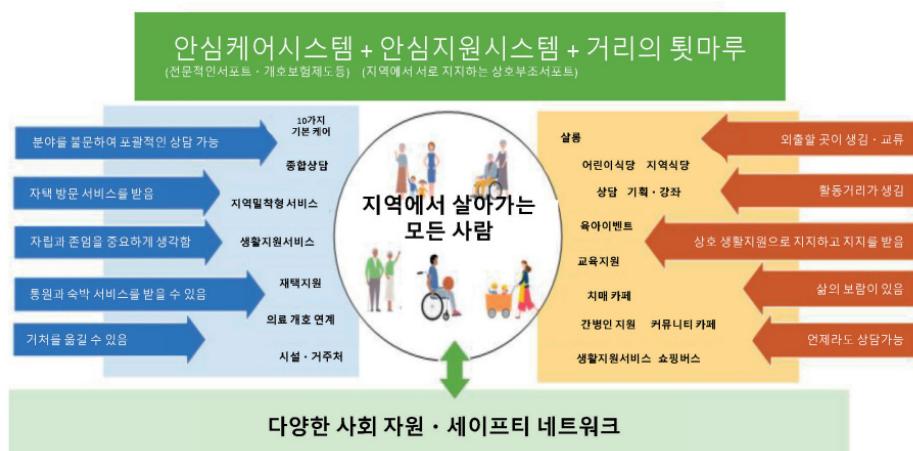
〈그림 3-5〉 도키와다이라단지 이키이키살롱

- 2010년 자치회와 단지사협이 모체가 되어 「안부 확인으로부터 납골까지」의 고독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NPO법인 고독사 제로연구회'를 설립⁵⁾
- 고독사 제로작전은 일본 전역의 고독사 대책의 모델로서 확산

5) 健康長寿ネット. 地域ぐるみで進める「孤独死ゼロ作戦」! (千葉県松戸市常盤平団地), 2020.05.29. <https://www.tyojyu.or.jp/net/kaigo-seido/jirei/kodokushizerosakusen.html>

(2)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

- 일본 치바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 법인인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90여개 사업소를 운영 중
-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 밖 지원을 동시에 진행
 - 제도 내 지원
 - 생활곤궁자 자립지원(후생노동성): 생활보호에 이르기 전 단계의 자립 지원 강화 도모
 - 지역포괄지원(후생노동성): 고령자의 존엄 유지와 자립을 위해 가능한 정든 마을에서 자기다운 삶을 지소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중심의 포괄적 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거주지원(국토교통성):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지 지원, 주 생활 기본법에 기초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확보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 형성을 위해 지역 내 연계 및 협력 지원, 주택관련 상담 후 원활한 임대주택 입주지원 및 월세 채무보증, 생활 지원을 수행
 - 중핵 지역생활지원(치바현): 제도의 사각지대 및 복합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괄적 상담 및 지역 종합 코디네이팅, 관계 기관 연계 등을 지원



자료: 서울복지재단(2022). 사회적 고립대응, 충분한가? 제2차 현장 실천가 관점으로

〈그림 3-6〉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의 안심시스템 및 거리의 틈마루 사업 개요

- 제도 밖 지원
 - 유니버설 근로지원: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
 - 안심지원시스템: 일상 생활권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지원서비스
 - 거리의 뒷마루: 생활클럽 치바그룹 및 연계 기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
 - 소액대출지원: 즉각적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소액 대출 사업

2. 국내 1인가구 지원정책

-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현상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1인가구가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형태임은 분명하나, 모든 1인가구가 동일하게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님
 - 현재 국내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세대 및 경제·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1인가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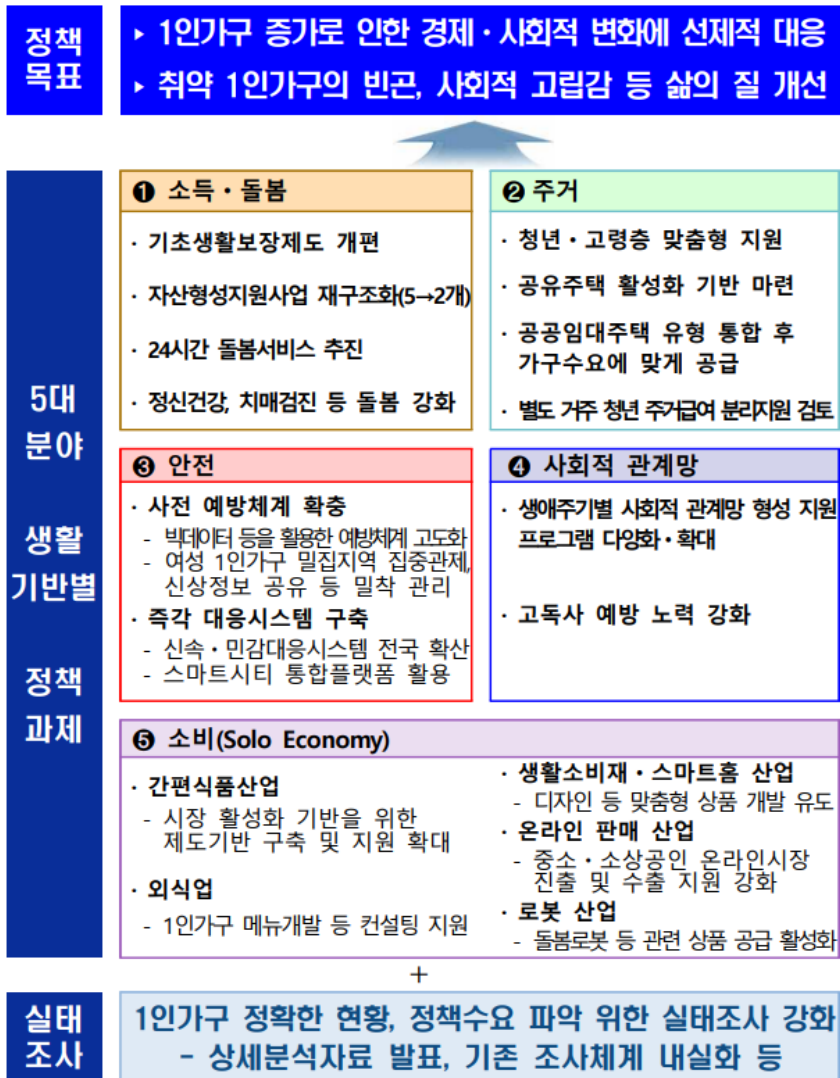
1)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1) 추진배경

- 1인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5년 이후 1인가구가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
- 이 같은 가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은 4인가구와 같은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구 관련 정책의 전반적 점검 및 체계적 대응이 필요
- 정부는 1인가구 시대에 맞춘 주거·사회복지·산업의 다차원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5개 중앙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1인가구 정책 T/F”를 2020년 1월 구성하였으며, 2020년 6월에는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I)’을 발표

(2) 주요 추진과제

-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빈곤 및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하는 취약 1인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2020).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I)

〈그림 3-7〉 1인가구 대응 정책 기본방향

-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종합적 정책 대응을 위해 1인가구 생활기반(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별 5대 분야 정책 과제와 1인가구 실태조사 강화 방안을 제시

2)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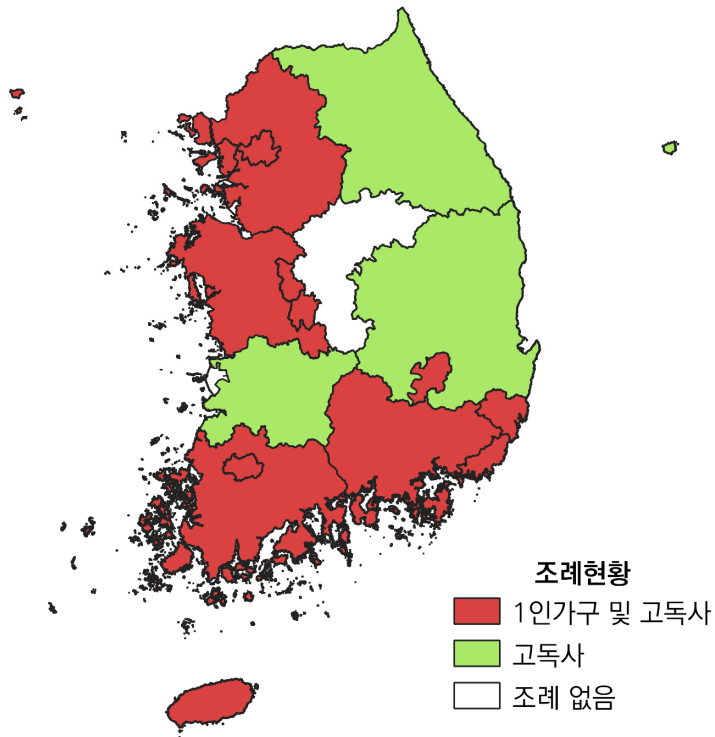
(1)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관련 조례 현황

-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노력이 중요
-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 및 고독사 문제에 주목하면서 조례를 통해 다양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수행
 - 모든 특별·광역시시의 경우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1인가구 및 고독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경우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지원 조례만을 제정하였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2022년 5월 기준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28건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제정된 조례는 239건으로 총 267건의 조례가 제정됨

〈표 3-3〉 1인가구 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주요 목표	제정 조례 수
광역	고독사 예방	14
	1인가구 지원	11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3
기초	고독사 예방	142
	1인가구 지원	42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55
합계		267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검색일: 2022.05.26., 검색어: 1인가구, 고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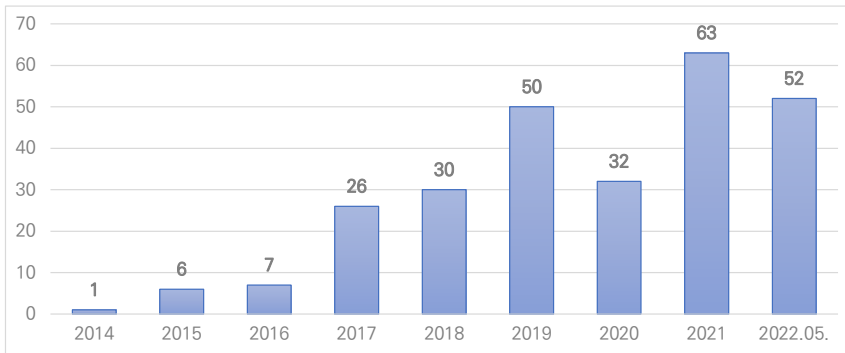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2.05.26. 기준

〈그림 3-8〉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관련 조례 분석

① 분석대상의 특성

- 2014년 이후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제정된 조례에는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총 1,001개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2.05.26. 기준

〈그림 3-9〉 연도별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및 워드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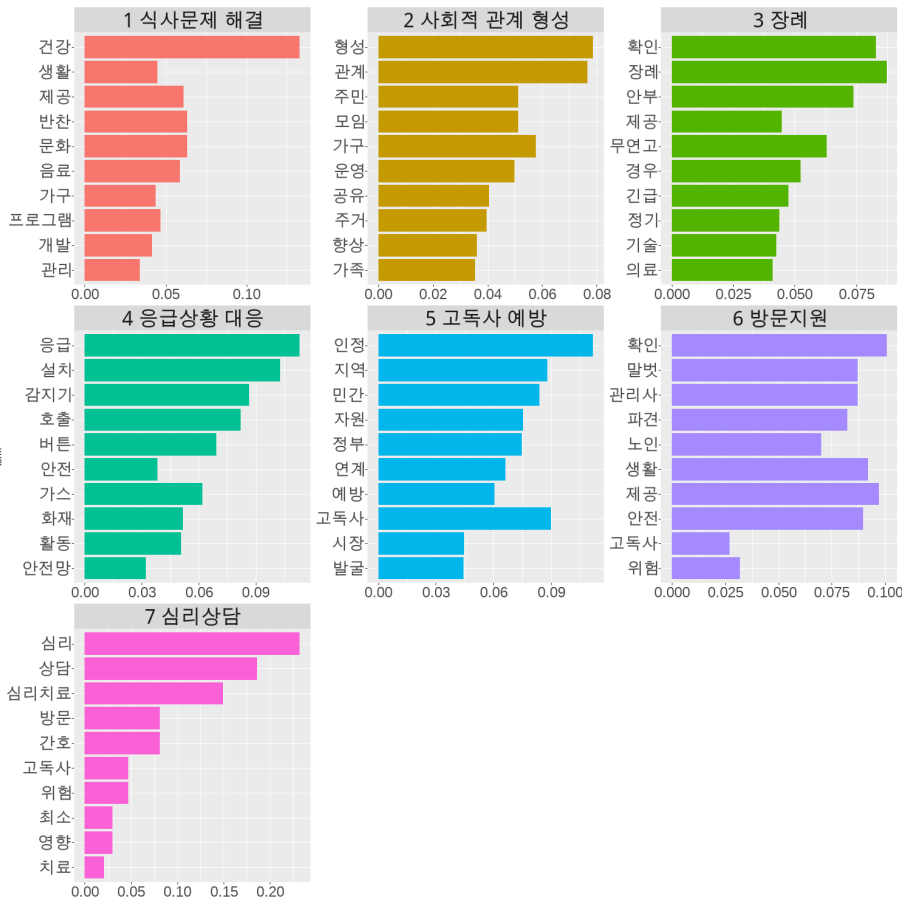
② 분석목적 및 분석방법

- 각 조례가 담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수행되고 1인가구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탐색
- 분석방법 및 절차
 - 조례상 제시되어 있는 지원사업 텍스트를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정형화
 - 추출된 단어들 중 출현빈도가 높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ex: 사업, 서비스 등)를 제거하기 위해 TF-IDF 값을 산출 후 제거(0.253 이하)
 - 토픽이 분류하는 단어의 정확도를 기반으로 적정 토픽수를 7로 결정
 - 분류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토픽을 대표하는 명칭을 부여

③ 분석결과

- 각 토픽이 담고 있는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식사문제 해결: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식습관 관리임. 이는 많은 1인가구 구성원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 관계 형성: 사회적 고립이 염려되는 1인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음.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모임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이 제안되는 동시에, 공유 공간 구축을 통한 관계 형성 방안 역시 나타나고 있음
- 장례: 장례 토픽은 고독사 관련 지원 사업으로 고독사가 임박하거나, 발생한 뒤 수행해야 할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응급상황 대응: IT기술을 활용하여 1인가구 구성원의 생활 활동을 파악하고, 응급 및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분류됨
- 고독사 예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험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이 분류됨. 특히 정부, 지역, 민간영역 연계가 강조되고 있음



〈그림 3-10〉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관련 조례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 방문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리사를 파견함으로써 노인들의 위험에 대비하는 활동들이 나타남. 앞선 고독사 예방도입과는 다르게 관리사를 통한 직접적인 방문지원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심리상담: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들이 분류됨

3) 제1차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1) 추진배경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정부 부처합동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및 ‘부산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 등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기본계획을 수립
- 급속하게 늘어나는 부산 1인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및 다양성이 포용되는 가족친화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함

(2) 주요 추진 과제

- 정부의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토대로 부산지역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4대 분야별 생활밀착형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
 - 소득·돌봄 분야
 - 저소득 1인가구 기본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 취약가구 자산형성 지원: 7종의 통장사업 운용·지원, 2종의 카드사업 운용·지원을 통해 1인가구의 경제적 자립 지원
 - 고용 연계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저소득 공공·희망·자활 근로 지원 및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스마트 돌봄서비스: 스마트 장비 및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복지관· 경로당·보건소·병원·자살예방센터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1인가구의 위기상황을 사전 예방

- 안전 분야

- 1인가구 안심 거주환경 조성: 여성친화형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및 안심마을 조성, 여성·청년 안심 홈세트 지원을 통해 주거침입, 절도,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거주환경 조성
- 안심 시스템 구축: 위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안심앱 운영하여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을 기반으로 한 안심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심야 마을버스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취약지역 순찰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 안전망을 강화

- 주거 분야

- 1인가구 주거 공급 확대: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 다양화에 대응하여 여성·청년·고령층 등 각기 다른 사회계층에 대응한 주거 공급지원 강화
- 취약 1인가구 주거비용 지원: 월세 비중이 높은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가구별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및 청년월세 지원, 청년의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및 임차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사업 수행

- 생활·건강 분야

-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진입 준비 교육 및 1인가구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확산 및 마을공동체 활동 연계, 마을사랑방 조성·운영, 가족센터 건립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외로움, 우울, 고립감에 취약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를 예방
- 신체·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제공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의 신체·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청년 및 중장년, 노인에 특화된 마음건강 및 신체건강, 치매 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부산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에는 정책지원방안 이외에도 1인가구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청년 1인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시행되지는 않음

-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차 1인가구 실태조사를 진행
- 1인가구 지표를 통한 영향평가 실시: 시 정책, 추진사업이 1인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1인가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

책방안 모색 및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발굴, 제도 개선을 건의

- 1인가구 정책팀 신설: 1인가구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1인가구 정책팀 신설

03

4)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1) 싱글빙글 서울(서울시 1인 가구 포털)

- 서울시는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범죄·고립·주거 분야의 안심정책을 추진
 - 건강: 맞춤 건강돌봄 및 먹거리 안심프로그램 운영
 - 고립: 1인가구의 고독 및 고립 탈출 지원, 경제적 자립과 사회관계 형성 기회 제공
 - 범죄: 주거지역의 안전·방법 강화 및 주거공간 안전을 위한 범죄안심 홈세트 보급
 - 주거: 1인가구 맞춤주택 공급, 주거공간 탐색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 지원
-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사업 참여를 위한 종합포털을 운영함으로 정책홍보 및 참여의 용이성을 증대

(2)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①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개요

- 서울시의 대다수 지역의 경우 1인가구 지원정책은 한국건강진흥원의 지역별 건강가정센터를 중심으로 전개
 - 지역에 위치한 가족센터는 보편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 누구나 편하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
 - 가족센터의 경우 1인가구 지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이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보편적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 및 효과성이 떨어짐
- 이 같은 상황에서 서초구를 시작으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의 지원센터 운영하기 시작함
 - 2019년 서초구 1인가구 지원센터 개소 이후 강남, 강동, 성동구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오프라인 센터가 개소·운영 중

② 강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

- 천오 아우름센터에 위치(1층 천호보건지소가 운영 중이며 2층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 체력인증센터, 사회적 경제기업 혁신플레이스가 같이 운영 중)
- 2022년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음
- 공유주방, 북카페, 코인세탁소와 같은 시설을 활용하여 혼밥 만들기 프로젝트, 쿠킹클래스, 1인 취약계층을 위한 멘토링 사업 등이 진행
-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 및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운영
- 회원 멤버십을 통해 차등적 1인가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정회원의 경우 강동구 1인가구(거주자, 직장인, 사업자) 구성원, 준회원의 경우 강동구 지역주민으로 설정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1인가구 여부를 판단



자료: 연구자 촬영 (촬영일: 2022.05.19.)

〈그림 3-11〉 강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

③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 1인가구의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1인가구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주민등록 이외에 고시원 거주여부를 확인
- 센터 운영 초기 직장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수행 후 프로그램을 구성
- 2021년 이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마음건강 및 신체건강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청년 및 중장년의 고독사 예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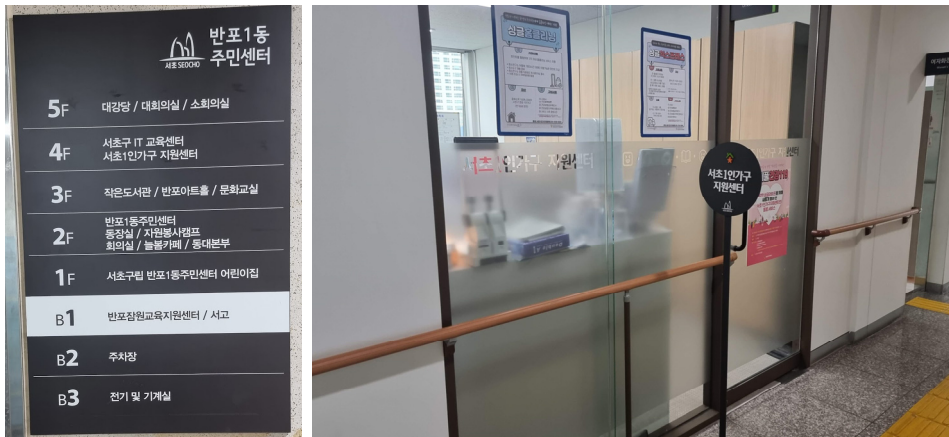
1
인
가
구
지
원
정
책
현
황

자료: 연구자 촬영 (촬영일: 2022.05.20.)

〈그림 3-12〉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④ 서초구 1인가구 지원센터

- 반포1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
- 2019년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센터를 개소,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온누리 복지재단이 운영 중
- 안전, 생활, 건강, 사회연결망 등 1인가구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1인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1인가구 구성여부나 실거주 여부를 확인



자료: 연구자 촬영 (촬영일: 2022.05.19.)

〈그림 3-13〉 서초구 1인가구 지원센터

3. 선행연구 정리 및 시사점

- 해외의 경우 1인가구라는 가구구조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이 겪는 외로움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외로움을 국가적 문제로 규정하고 국민의 사회적 관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외로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담론을 조성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외로움 문제에 대응

- 외로움 문제에 대하여 실증적이고 과학적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
- 국내의 경우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현상에 대응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이 마련
 - 빈곤 및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는 취약 1인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역시 1인가구 지원조례를 통해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수행중이나, 정책기획 및 집행에 있어 이들 간의 유기적 연결에 대한 강조는 전무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정책은 노년 1인가구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관련 조례 분석 결과 고독사나 응급상황 대응, 방문지원과 같은 노년 1인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경 및 환경, 어려움이 각기 다른 만큼 계층적 특성에 따른 지원정책 집행이 요구됨
- 서울시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강화 및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 중
 - 1인가구 정책 플랫폼인 '쌍글병글 서울'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참여의 용이성을 증대
 - 1인가구 지원센터 및 커뮤니티 센터와 같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의 오프라인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를 발굴함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

제 4 장

부산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부산시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
- 조사대상
 - 부산지역에 거주 중인 만 18~34세 청년 1인가구 1,000명
 - 지역, 성별, 연령에 비례한 할당 표집 수행
 - 1인가구 기준: 혼자서 살립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 조사기간: 2021년 5월 9일 ~ 2022년 6월 17일(6주)
- 조사기관: 다산리서치

3) 조사 내용

- 1인가구의 삶, 주거, 경제생활, 건강,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 안전, 결혼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

〈표 4-1〉 조사내용

구분	세부 항목
1인가구의 삶	- 주인등록상 1인가구 구성 여부 1인가구 구성 기간 및 이유 - 가족과의 경제적 관계 1인가구의 장점 및 단점 - 미래의 가구·거주 형태 1인가구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
주거	- 거주 주택 유형 및 점유형태 - 주택 마련 방법 및 주거비 부담 - 주거지 선택 시 고려 사항 - 주거환경 만족도
경제생활	- 현재 경제활동상태 및 지난 한달 간 구직 경험 여부 -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만족도 - 소득 및 생활비 지출 - 부채 유무 및 부채원인 - 미래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건강	- 신체·정신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식습관 및 운동
여가생활	- 선호하는 문화/여가생활 -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인식 및 어려움
사회적 관계	1인가구 구성 이후 사회적 관계의 변화 - 정보교류의 필요성 - 지난 1년 간 모임·단체 참여 -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가족·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안전	- 주거지역 안전에 대한 인식 - 범죄 취약 장소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고용상태의 변화 -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문화·여가 생활의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청년 1인가구 정책 인식	- 부산시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의 필요성 -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04

부산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

4) 응답자 특성

- 응답자 중 여성은 486명(48.6%)이었으며, 남성은 514명(51.4%)임
- 25~29세 응답자가 384명(3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8~24세는 341명(34.1%), 30~34세 275명(27.5%) 순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이 538명(53.8%)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재학(전문대 포함)이 336명(33.6%), 고등학교 졸업이 119명(11.9%)을 차지함
-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이 경우 200~250만 원이 213명(21.3%)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250~300만 원 190명(19.0%), 50~100만 원 176명(17.6%), 100~150만 원 133명(13.3%)순 임
- 응답자 중 부산진구 거주 주민 비중이 16.3%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해운대구(13.2%), 연제구(10.2%), 금정구(9.2%) 순으로 나타남
-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의 경우 2~3년이 259명(25.9%)으로 가장 많았으며, 1~2년이 257명(25.7%), 4년 이상 194명(19.4%), 3~4년 191명(19.1%), 1년 미만 99명(9.9%) 순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최종 교육기관의 경우 584명(58.4%)이 부산에서 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울산·경남 졸업자는 300명(30.0%), 기타 지역 졸업자는 116명(11.6%)로 나타남

〈표 4-2〉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514	51.4	연령	18~24세	341	34.1	
	여성	486	48.6		25~29세	384	38.4	
학력	중학교 졸업	2	0.2		30~34세	275	27.5	
	고등학교 졸업	119	11.9	거주 지역	중부산	동구	40	4.0
	대학 재학(전문대 포함)	336	33.6			서구	40	4.0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	538	53.8			영도구	18	1.8
	대학원 이상	5	0.5			부산진구	163	16.3
월 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	25	2.5			연제구	102	10.2
	50~100만 원	176	17.6			남구	85	8.5
	100~150만 원	133	13.3			금정구	92	9.2
	150~200만 원	99	9.9			동래구	48	4.8
	200~250만 원	213	21.3		동부산	해운대구	132	13.2
	250~300만 원	190	19.0			기장군	15	1.5
	300~350만 원	99	9.9			수영구	32	3.2
	350~400만 원	46	4.6		서부산	북구	47	4.7
	400만 원 이상	19	1.9			사상구	76	7.6
1인 가구 생활 기간	1년 미만	99	9.9			사하구	50	5.0
	1~2년	257	25.7	강서구	33	3.3		
	2~3년	259	25.9	최종 교육 기관 소재지	부산 울산·경남 기타	부산	584	58.4
	3~4년	191	19.1			울산·경남	300	30.0
	4년 이상	194	19.4			기타	116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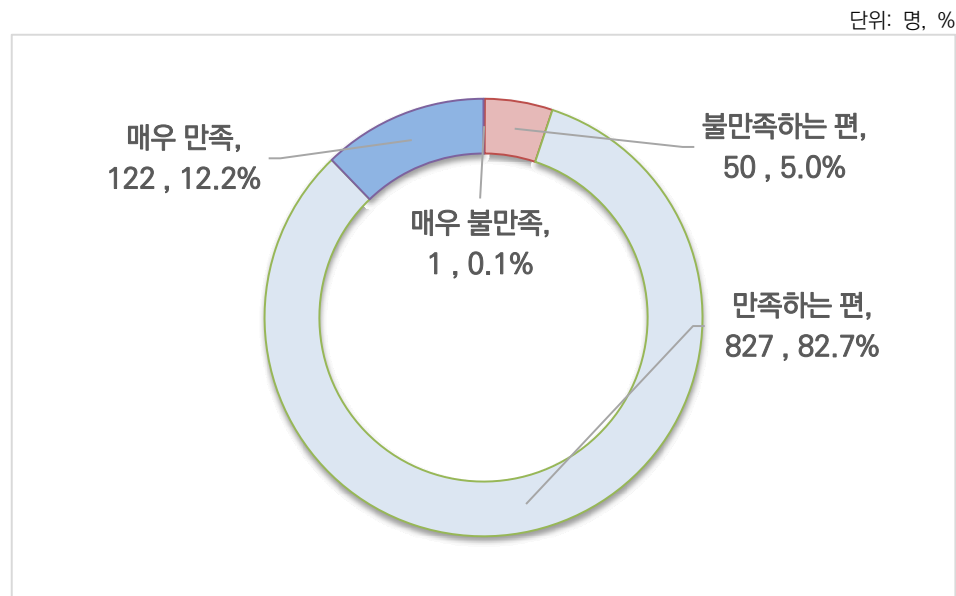
2. 설문조사 결과

1) 1인가구의 삶

(1) 1인가구의 구성

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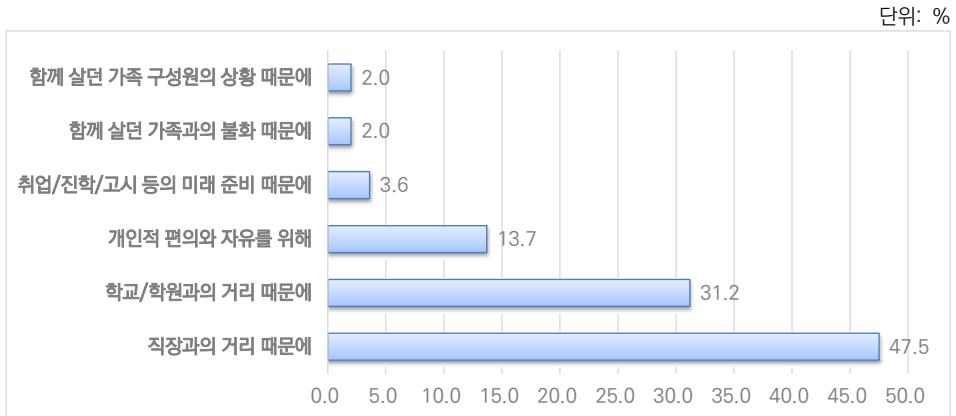
- 부산 거주 청년 1인가구의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임
 - 전체 응답자의 94.9%가 혼자 생활하는 삶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반면, 단 5.1% 만이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



〈그림 4-1〉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② 혼자 생활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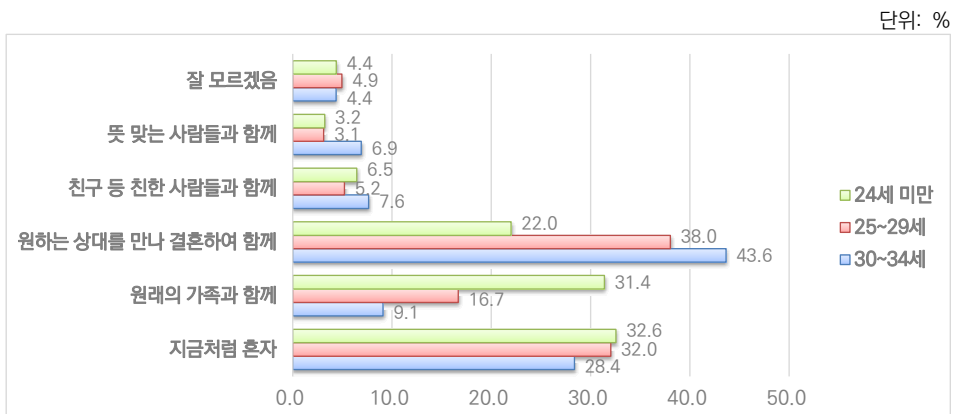
- 청년 1인가구 구성원인은 직장 및 학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직장과의 거리'라고 응답한 사람이 47.5%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학원과의 거리' 때문에 독립한 사람은 31.2%로 나타남
 - '개인적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 13.7%, '취업/진학/고시 등의 미래준비를 위해' 3.6%,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및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의 상황'이 각각 2.0% 로 조사됨



〈그림 4-2〉 혼자 생활하는 이유

③ 앞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가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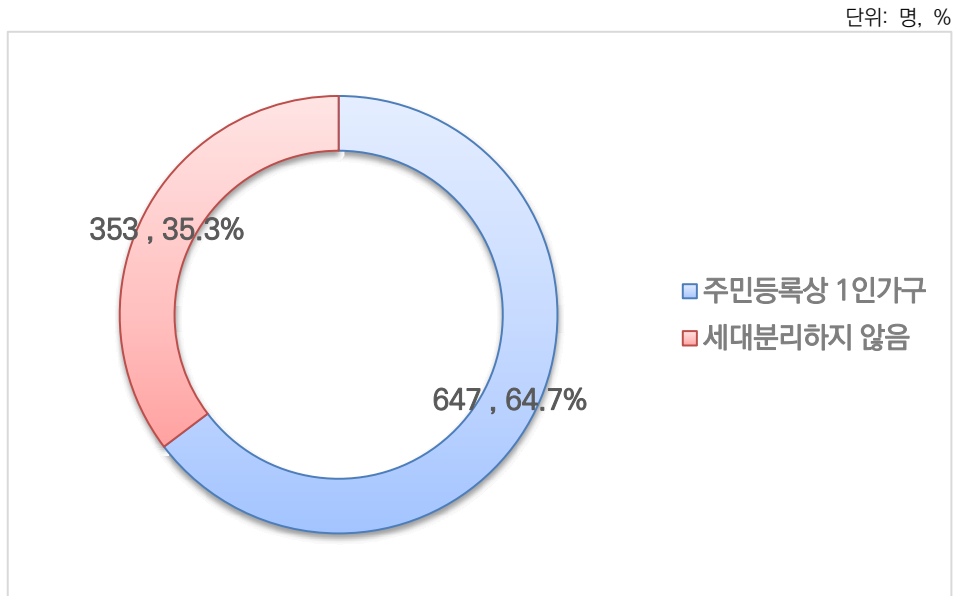
- 청년 1인가구 중 ‘앞으로도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31.2%로 조사된 반면, ‘원하는 상대와 결혼하여 함께’ 34.1%, ‘원래의 가족과 함께’ 19.6%로 나타남
- 연령별 응답을 살펴보면 24세 미만의 경우 32.6%가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여 25~29세 응답자는 32.0%, 30~34세 응답자는 28.4%만이 혼자 사는 것을 선호 함
- 30~34세 응답자의 43.6%가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24세 미만의 응답자는 31.4%가 원래의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이룸



〈그림 4-3〉 앞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가구 형태

④ 주민등록상 1인가구 여부

- 상당 경우 1인가구 구성 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64.7%가 주민등록상 1인가구로 등록되어있다고 응답한 반면, 35.3%는 1인가구 과정에서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 주민등록상 1인가구 구성 여부

- 주민등록상 1인가구 구성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별 및 연령, 소득, 최종 교육기관 소재지와 같은 변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지역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서부산 및 동부산 거주자에 비해 중부산 거주자가, 그리고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음
 - 개인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 및 소득수준이 낮고, 1인가구로 생활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음
 - 교육수준에 따른 세대분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4-3〉 주민등록상 1인가구 구성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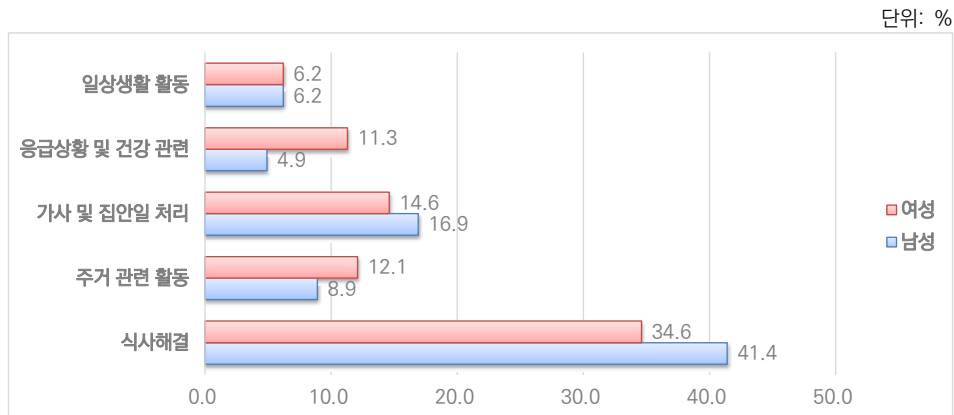
	주민등록상 1인가구 구성 여부		
	Est.	S.E.	Exp(B)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서부산	1.100 ***	.199	3.005
동부산	1.257 ***	.228	3.515
최종 교육기관 소재지 (준거: 부산)			
울산·경남	-.464 *	.215	.629
기타	-.420 *	.168	.657
성별 (준거: 남성)			
여성	.329 *	.151	1.389
연령	.075 **	.026	1.078
교육	-.211	.129	.810
소득	.184 ***	.053	1.203
1인가구 생활기간	.014 **	.005	1.014
(상수)	-2.224 ***	.553	.108
χ^2	188.348 ***		
-2 Log Likelihood	1,110.22		
Nagelkerke R^2	.236		
사례수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2) 청년 1인가구의 생활

① 생활에서의 불편함

- 청년 1인가구 구성원은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불편한 점으로 식사해결을 꼽음
 - 청년 1인가구가 생활하는 가운데 겪는 불편한 점은 ‘식사해결’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사 및 집안일 처리(시설관리)’ 15.8%, ‘불편한 점 없음’ 15.7%, ‘주거 관련 활동(집 구하기, 이사 등)’ 10.5%, ‘응급상황 및 건강 관련 어려움(건강검진, 질병 등)’ 8.0%, ‘일상생활 활동(쇼핑, 세탁물처리, 고지서 납부 등)’ 6.2%, ‘여행 등 여가활동’ 3.1%, ‘영화보기, 운동하기 등 문화체육생활’ 1.9%, ‘사회적 편견(시선)’ 0.7%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식사해결, 가사 및 집안일 처리를 더욱 불편하게 느끼는 반면, 여성의 경우 주거 관련 활동이나 응급상황 및 건강관련 문제에 있어 더욱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주1: 응답 비중이 높은 상위 5개의 결과이며, 여가활동, 문화체육생활, 사회적 편견도 문항에 포함되어 있음

주2: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5.7%

〈그림 4-5〉 1인가구로 살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② 생활에서의 불안감

○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 1인가구 구성원은 경제 및 주거 영역에서 높은 불안감을 보임

- 생활에서의 불안감 조사 결과 ‘불안한 점 없음’이 2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 불안감’ 26.1%,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 17.1%,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14.8%, ‘계속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5.4%, ‘함께 살지 않는 가족(부모 등)에 대한 걱정’ 3.0%, ‘사회적 소외에 대한 불안감’ 1.9%, ‘노후에 대한 염려’ 1.8%, ‘자녀를 갖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 1.2% 순으로 조사됨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보인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주거 및 외로움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
- 연령별 불안감 차이의 경우 24세 미만집단의 경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로움 및 주거불안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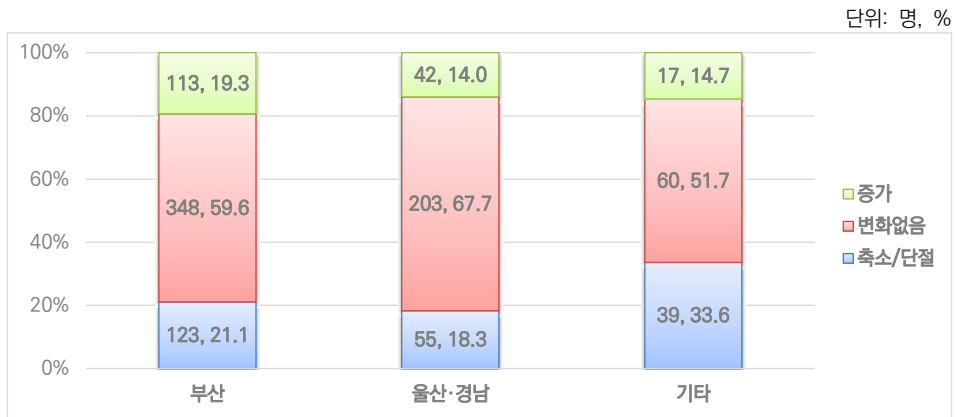
주1: 응답 비중이 높은 상위 4개의 결과이며, 가족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염려, 사회적 소외, 자녀에 관한 문항도 포함되어 있음

주2: 불안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8.7%

〈그림 4-6〉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불안감

③ 1인가구 구성이후 사회적 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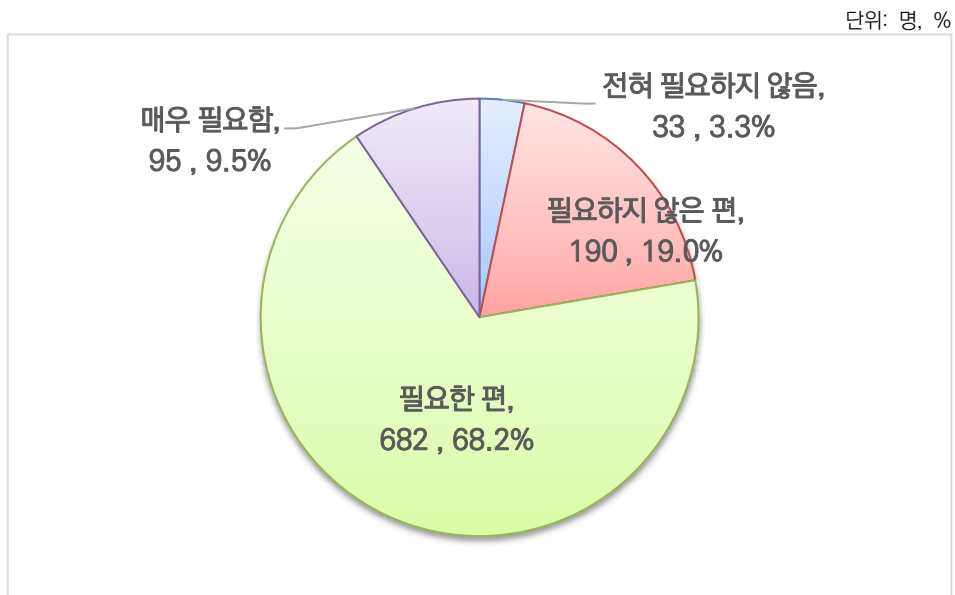
- 1인가구로 독립하기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사회적 관계 변화 정도는 ‘변화 없음’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관계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17.2%(많은 관계가 증가 1.7%, 약간 관계가 증가 15.5%), 사회적 관계가 축소/단절 되었다는 응답은 21.7%(약간 관계가 축소/단절 20.5%, 많은 관계가 축소/단절 1.2%)로 나타남
- 부산 및 울산·경남 지역 출신의 1인가구 구성원에 비해 기타 지역 출신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 있어 축소 및 단절이 더욱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는 1인가구 구성 과정에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더욱 큼을 시사함



〈그림 4-7〉 출신지역별 1인가구 구성 이후 사회적 관계 변화

④ 다른 1인가구와의 정보교류 필요성

- 많은 청년 1인가구는 다른 1인가구 구성원과의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주변의 다른 1인가구와의 정보교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 정보교류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2.3%(전혀 필요하지 않음 3.3%, 필요하지 않은 편 19.0%)인 반면,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7.7%(필요한 편 68.2%, 매우 필요함 9.5%)로 나타남



〈그림 4-8〉 다른 1인가구와의 교류 필요성

⑤ 전반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 평소 생활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응답자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경우 중층으로 인식한 사람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하층 38.2%, 상층 8.1% 순으로 나타남
- 앞으로 3년 뒤 응답자가 예상하는 생활수준 변화 정도의 경우 앞으로 다소 좋아질 것이라 응답한 사람이 58.0%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매우 좋아질 것 9.1%, 다소 나빠질 것 1.7% 순으로 조사됨
- 청년 1인가구의 현재 생활수준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인가구 구성이유 및 현재 거주 지역, 최종 교육기관 소재지, 연령, 교육, 소득 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1인가구 구성이유 변인을 살펴보면 교육을 목적으로 1인가구를 구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현재 생활에 더욱 만족하고 있음
 - 현재 거주하는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면 중부산에 거주한 청년 1인가구가 서부산 거주 1인가구에 비해 현재 생활수준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교육기관 소재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산출신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가 타 지역 출신보다 더욱 높음
 -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1인가구로서의 삶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 1인가구의 앞으로의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변인의 회귀분석 결과 1인가구 구성이유 및 최종 교육기관 소재지, 소득, 1인가구 생활기간 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1인가구 구성이유 변인을 살펴보면 교육을 목적으로 1인가구를 구성한 사람들은 직장을 목적으로 1인가구를 구성한 사람들에 비해 앞으로의 생활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청년의 출신지역을 보여주는 최종교육기관 소재지 변수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수준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
 - 타 지역 출신의 1인가구 청년은 부산출신 청년에 비해 더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임. 이는 타 지역 출신의 청년 1인가구가 더욱 열악한 생활환경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줌
 - 울산 및 경남 출신 1인가구원이 부산출신에 비해 앞으로의 생활수준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이는 부산 인근지역 출신의 청년들이 현재의 생활은 불만족할지라도,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부산으로 이주하였음을 의미함

-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소득이 높고 1인가구로의 삶을 오래 지속할 수록 앞으로의 생활수준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음

〈표 4-4〉 전반적 생활수준 및 앞으로의 생활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전반적인 생활수준		앞으로의 생활수준	
	Est.	S.E.	Est.	S.E.
1인가구 구성이유 (준거: 교육)				
직장	-1.075 ***	.194	-.219 **	.078
개인적 편의 및 자유	-1.325 ***	.230	-.059	.093
기타	-.896 ***	.230	-.111	.093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서부산	-.570 ***	.125	-.042	.050
동부산	.172	.137	-.016	.055
최종 교육기관 소재지 (준거: 부산)				
울산·경남	-.465 **	.147	.131 *	.059
기타	-.486 ***	.115	.040	.046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53	.101	.041	.041
연령	-.045 *	.018	-.009	.007
교육	.347 ***	.080	.026	.032
소득	.329 ***	.042	.097 ***	.017
1인가구 생활기간	.003	.003	.003 **	.001
(상수)	3.609 ***	.414	3.433	.167
F	11.122 ***		5.526 ***	
Adj. R ²	.108		.052	
사례수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3) 가족과의 관계 및 인식

① 경제적 측면에서 가족(부모)과의 관계

- 경제적 측면에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1.7%를 차지함

- 경제적 측면에서 가족(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응답자는 전체의 43.6% (가족으로부터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음 16.6%, 가족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음 27.0%)로 나타났으며, 4.7%(가족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0.6%, 가족에게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4.1%)의 응답자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함

〈표 4-5〉 경제적 측면에서 가족(부모)과의 관계

구분		경제적 지원 받음		경제적으로 분리		경제적 지원 함		합계	
		명	%	명	%	명	%	명	%
연령	24세 미만	283	83.0	51	15.0	7	2.1	341	100
	25 ~ 29세	122	31.8	244	63.5	18	4.7	384	100
	30 ~ 34세	31	11.3	222	80.7	22	8.0	275	100
거주 지역	중부산	278	45.2	300	48.8	37	6.0	615	100
	동부산	64	35.8	109	60.9	6	3.4	179	100
	서부산	94	45.6	108	52.4	4	1.9	206	100
1인 가구 생활 기간	1년 미만	76	76.8	22	22.2	1	1.0	99	100
	1 ~ 2년	150	58.4	99	38.5	8	3.1	257	100
	2 ~ 3년	109	42.1	136	52.5	14	5.4	259	100
	3 ~ 4년	61	31.9	120	62.8	10	5.2	191	100
	4년 이상	40	20.6	140	72.2	14	7.2	194	100

- 연령이 증가하고, 1인가구 생활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족(부모)으로부터 독립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4세 미만은 경제적 지원함 2.1%, 경제적 분리 15.0%, 경제적 지원받음 83.0%, 25~29세는 경제적 지원함 4.7%, 경제적 분리 63.5%, 경제적 지원받음 31.8%, 30~34세는 경제적 지원함 8.0%, 경제적 분리 80.7%, 경제적 지원받음 11.3%로 나타나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분리됨을 알 수 있음
 - 거주지 권역별로는 중부산은 경제적 지원함 6.0%, 경제적 분리 48.8%, 경제적 지원받음 45.2%, 동부산은 경제적 지원함 3.4%, 경제적 분리 60.9%, 경제적 지원받음 35.8%, 서부산은 경제적 지원함 1.9%, 경제적 분리 52.4%, 경제적 지원받음 45.6%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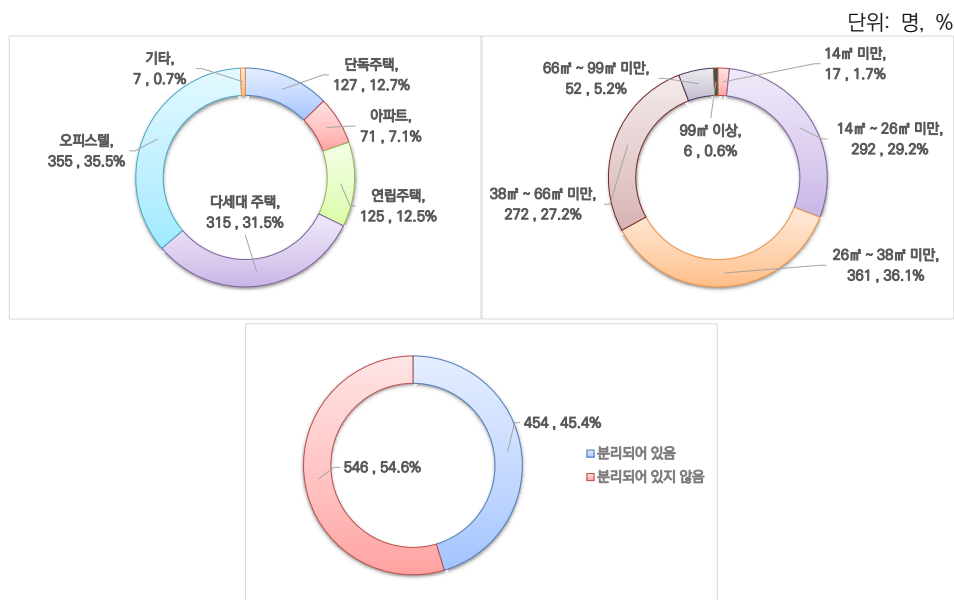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1년 미만은 경제적 지원함 1.0%, 경제적 분리 22.2%, 경제적 지원받음 76.8%, 1~2년 미만은 경제적 지원함 3.1%, 경제적 분리 38.5%, 경제적 지원받음 58.4%, 2~3년 미만은 경제적 지원함 5.4%, 경제적 분리 52.5%, 경제적 지원받음 42.1%, 3~4년 미만은 경제적 지원함 5.2%, 경제적 분리 62.8%, 경제적 지원받음 31.9%, 4년 이상은 경제적 지원함 7.2%, 경제적 분리 72.2%, 경제적 지원받음 20.6%로 나타남

2) 주거 및 경제

(1) 주거공간

① 주택 유형 및 면적, 취사공간의 분리

-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3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세대 주택’ 31.5%, ‘단독주택(일반, 다가구)’ 12.7%, ‘연립주택’ 12.5%, ‘아파트(주상복합)’ 7.1%, ‘기타’ 0.7%(고시원 0.6%, 기숙사 및 사회시설 0.1%)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 거주 주택유형 및 면적, 취사공간 분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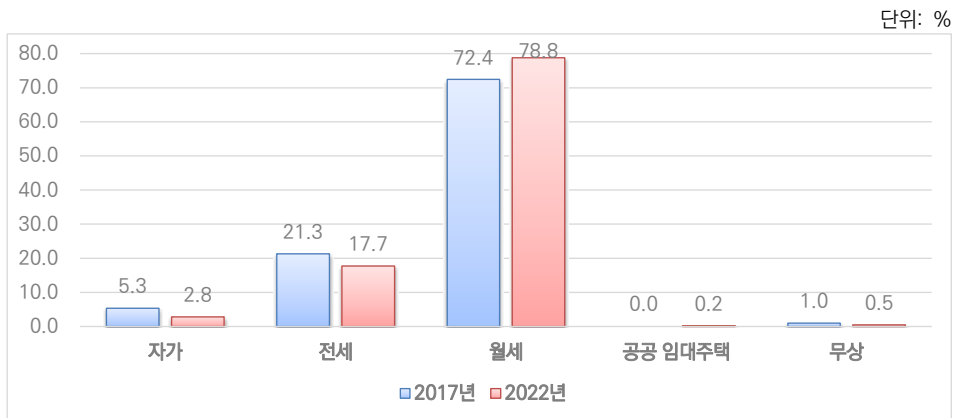
○ 거주하고 있는 곳의 면적은 '26㎡(7.9평) ~ 38㎡(11.5평) 미만'이 3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4㎡(4.2평) ~ 26㎡(7.9평) 미만' 29.2%, '38㎡(11.5평) ~ 66㎡(20평) 미만' 27.2%, '66㎡(20평) ~ 99㎡(30평) 미만' 5.2%, '14㎡(4.2평) 미만' 1.7%, '99㎡(30평) 이상' 0.6% 순 임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거주공간과 취사공간 분리 여부는 '분리되어 있음' 45.4%, '분리되어 있지 않음' 54.6%로 조사됨

② 주택의 점유 형태

○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점유형태는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77.3%, 보증금 없는 월세·연세 1.5)가 7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세' 17.7%, '자가' 2.8%,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0.5%, '공공 임대주택(공공임대 등)' 0.2%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수행된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와 비교하면 자가 및 전세의 경우 그 수가 감소한 반면, 월세거주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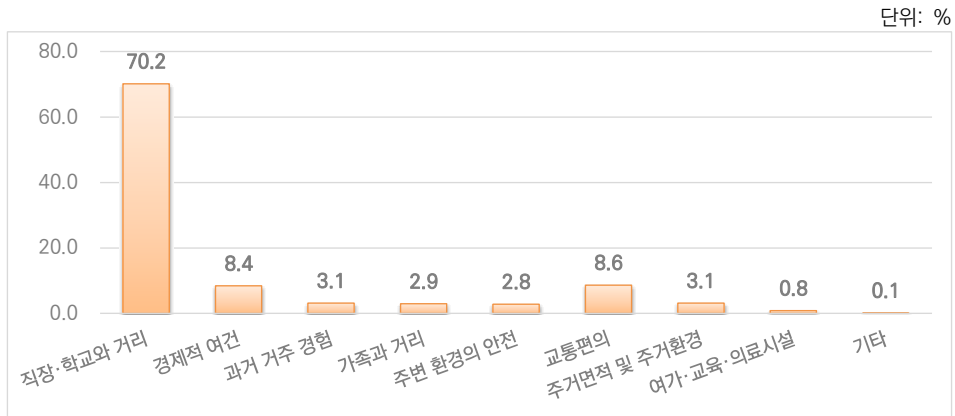
자료: 문정희·이재정·김형균(2017).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

〈그림 4-10〉 부산 청년 1인가구의 주택 소유형태 변화(2017년, 2022년)

③ 현 주거지 선택 이유

○ 현 주거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또는 학교와 거리가 가까워서'가 7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해서' 8.6%, '비용이 저렴해서(경제적 여건 고려)' 8.4%, '과거 거주 경험이 있는 지역이라서', '주거면적(방 크기, 개수)

및 주거환경(냉난방, 소음, 방음, 거주층수 등)이 좋아서' 각 3.1%, '부모·친지 등 가족과 거리가 가까워서' 2.9%, '거주지의 치안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 2.8%, '여가 및 교육시설, 의료시설이 가까워서' 0.8%, '기타' 0.1% 순 임



〈그림 4-11〉 현 주거지 선택 이유

④ 주거만족도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7.4%(‘불만족하는 편’ 7.4%), 만족 92.6%(‘만족하는 편’ 84.1%, ‘매우 만족’ 8.5%)로, 대부분의 청년 1인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환경(교통, 주차, 상업시설 접근성 등)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편으로 불만족 9.2%(‘불만족하는 편’ 9.2%), 만족 90.8%(‘만족하는 편’ 78.2%, ‘매우 만족’ 12.6%)로 조사됨
-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변 환경의 1인 생활 안전도는 불안하다는 응답이 11.0%(‘약간 불안함’ 11.0%)인 반면, 안전하다는 응답은 89.0%(‘대체로 안전함’ 71.8%, ‘매우 안전함’ 17.2%)을 차지함
- 〈표 4-6〉은 지금까지 살려본 주택 및 주거환경, 안전에 관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주거만족도 변인을 구성(Cronbach $\alpha=.681$)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임
 - 거주지역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중부산 거주 1인가구에 비해 서부산 및 동부산 거주 1인가구의 주거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종 교육기관 소재지 변인의 경우 부산출신 1인가구에 비해 울산·경남 출신의 1인가구원의 주거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환경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 주거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Est.	S.E.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서부산	.059 **	.022
동부산	.048 *	.023
최종 교육기관 소재지 (준거: 부산)		
울산·경남	-.052 *	.025
기타	-.027	.020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08	.017
연령	-.008 **	.003
교육	-.007	.014
소득	.034 ***	.006
1인가구 생활기간	.001	.000
(상수)	2.313 ***	.062
F	7.360 ***	
Adj. R^2	.054	
사례수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2) 경제생활

① 주택 자금 마련 방법

- 현재 거주 주택 마련 방법 1순위 응답은 ‘(상환하지 않는) 부모나 친지, 형제·자매의 도움’이 4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 (대출 없음)’ 32.7%, ‘금융기관 대출 (1금융권/2금융권 포함)’ 13.1%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거주 주택 마련 방법 2순위 응답은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 (대출 없음)’이 4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환하지 않는) 부모나 친지, 형제·자매의 도움’ 22.2%, ‘금융기관 대출 (1금융권/2금융권 포함)’ 18.0% 순으로 조사됨
- 1, 2순위 종합결과(1,527건)는 ‘(상환하지 않는) 부모나 친지, 형제·자매의 도움’이 3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 (대출 없음)’ 35.8%, ‘금융기관 대출 (1금융권/2금융권 포함)’ 14.8% 순임

〈표 4-7〉 현재 거주 주택 마련 방법(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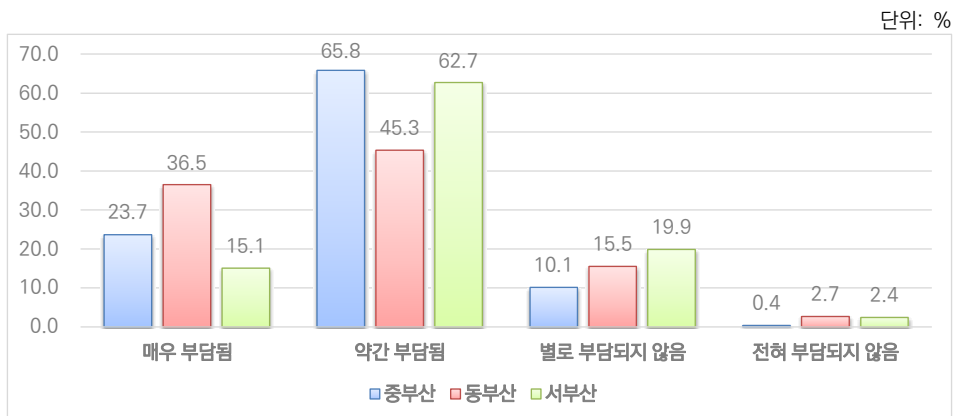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합계	
	명	%	명	%	명	%
본인 자금	327	32.7	219	41.6	546	35.8
금융기관 대출 (1·2 금융권)	131	13.1	95	18.0	226	14.8
사금융 (3 금융권)	2	0.2	3	0.6	5	0.3
직장 내 대출	7	0.7	14	2.7	21	1.4
가족의 도움 (상환 필요)	42	4.2	31	5.9	73	4.8
가족의 도움 (상환의무 없음)	455	45.5	117	22.2	572	37.5
지인의 도움	35	3.5	48	9.1	83	5.4
기타	1	0.1	0	0.0	1	0.1
합계	1,000	100.0	527	100.0	1,527	100.0

04

부산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

② 주거비 부담

- 앞서 월세 및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월 지출되는 주거비(이자, 월세, 사글세 등)에 대한 부담정도를 물어본 결과 85.6%(‘매우 부담됨’ 24.3%, ‘약간 부담됨’ 61.3%)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4.4%(‘별로 부담되지 않음’ 13.2%, ‘전혀 부담되지 않음’ 1.3%)로 나타남



〈그림 4-12〉 지역별 주거비 부담

○ 거주 지역에 따라 거주비에 대한 부담감의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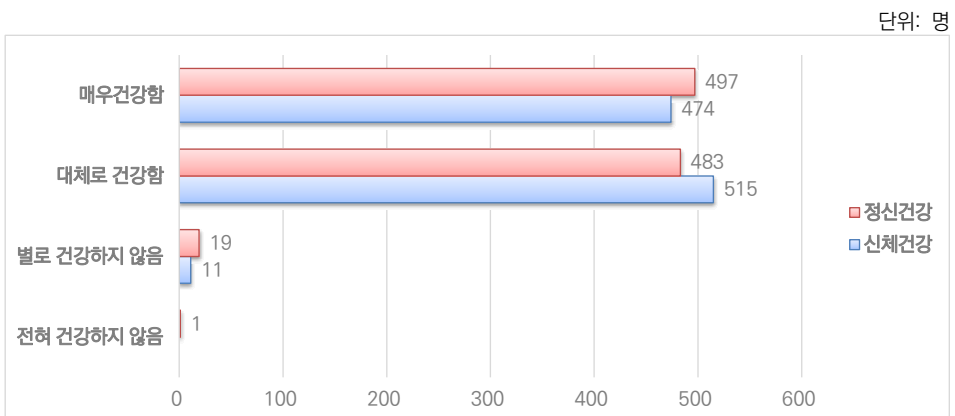
- 동부산 거주 1인가구의 경우 주거비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36.5%로 가장 많았던 반면, 중부산 및 서부산 거주자의 경우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65.8%와 62.7%로 동부산(45.3%)에 비해 많은 편임
- 서부산 거주 주민의 22.5%의 경우 거주비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동부산(18.2%) 및 중부산(10.5%) 지역의 응답과 대조를 이룸

3) 건강

(1) 주관적 건강평가

○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대한 청년 1인가구의 주관적 평가는 대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편

-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음 1.1%(별로 건강하지 않음 1.1%), 건강함 98.9%(대체로 건강함 51.5%, 매우 건강함 47.4%)로 나타남
-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음 2.0%(전혀 건강하지 않음 0.1%, 별로 건강하지 않음 1.9%), 건강함 98.0%(대체로 건강함 48.3%, 매우 건강함 49.7%)로 나타남



〈그림 4-13〉 주관적 신체·정신건강

(2) 생활습관

① 식생활

○ 성별에 따른 청년 1인가구의 식습관 차이가 나타나는 편

-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점 척도 기준 남성은 2.43, 여성은 2.49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불규칙적 식사의 경우 4점 척도 기준 남성은 2.74, 여성은 2.9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욱 불규칙적 식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t = -3.781$, $p < .001$)
- 배달음식 이용 여부의 경우 4점 척도 기준 남성은 3.18, 여성은 3.0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욱 배달음식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t = 2.093$, $p = .037$)

〈표 4-8〉 성별에 따른 청년 1인가구의 식습관 차이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척도		t-value
						평균	표준편차	
균형 있는 영양섭취	남성	60	209	211	34	2.43	.78	-1.342
	여성	58	172	214	42	2.49	.81	
불규칙적 식사	남성	32	170	211	101	2.74	.84	-3.781 ***
	여성	19	110	240	117	2.94	.79	
배달음식 이용	남성	3	49	316	146	3.18	.61	2.093 *
	여성	4	75	279	128	3.09	.67	

주: * $p < .05$, *** $p < .001$

② 운동

- 운동습관의 경우 6점 척도 기준 남성은 3.58, 여성은 3.01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욱 규칙적으로 운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t = 5.599$, $p < .001$)

〈표 4-9〉 성별에 따른 청년 1인가구의 운동습관 차이

단위: 명

구분		전혀 안함	3개월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6점 척도		t-value
								평균	표준 편차	
운동 주기	남성	105	14	64	175	121	35	3.58	1.55	5.599 ***
	여성	173	10	67	133	82	21	3.01	1.67	

주: *** p < .001

(3) 정서적 불안감

- 청년 1인가구의 외로움, 불안함, 우울함과 같은 감정을 얼마나 느끼는지 살펴본 결과 다른 감정에 비해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외로움은 전혀 느끼지 않음 48.1%, 아주 가끔 느낌 (월 1~2회) 38.1%, 가끔 느낌 (주 1~2회) 12.7%, 자주 느낌 (주 3~4회) 0.8%, 매일 느낌 0.3%로 전혀 느끼지 않음(48.1%)이 가장 높게 남
 - 불안함은 전혀 느끼지 않음 65.3%, 아주 가끔 느낌 (월 1~2회) 28.9%, 가끔 느낌 (주 1~2회) 5.2%, 자주 느낌 (주 3~4회) 0.5%, 매일 느낌 0.1%로 전혀 느끼지 않음(65.3%)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우울함은 전혀 느끼지 않음 73.7%, 아주 가끔 느낌 (월 1~2회) 20.8%, 가끔 느낌 (주 1~2회) 4.4%, 자주 느낌 (주 3~4회) 1.0%, 매일 느낌 0.1%로 전혀 느끼지 않음(73.7%)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4-10〉은 지금까지 살펴본 외로움 및 불안함, 우울함에 관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정서적 불안감 변인을 구성(Cronbach $\alpha=.757$)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임
 - 거주지역의 차이가 정서적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서부산 및 동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에 비해 중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욱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 교육기관 소재지 변인의 경우 부산 출신 1인가구에 비해 기타지역 출신의 1인가구 구성원의 정서적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욱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으며, 연령이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정서적 불안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0〉 정서적 불안감에 대한 회귀분석

	Est.	S.E.
거주지역 (준거: 중부산)		
서부산	-.111 **	.042
동부산	-.415 ***	.045
최종 교육기관 소재지 (준거: 부산)		
울산·경남	.063	.049
기타	.132 ***	.038
성별 (준거: 남성)		
여성	.074 *	.034
연령	.031 ***	.006
교육	-.060 *	.027
소득	-.046 ***	.011
1인가구 생활기간	.000	.001
(상수)	1.061 ***	.120
F	13.617 ***	
Adj. R^2	.102	
사례수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4)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1) 코로나19 이후 고용상태의 변화

- 코로나19 시기동안 고용상태는 임금근로자가 67.8%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 5.3%, 실업자·비취업자 2.1% 순으로 나타남(‘해당 없음’에 해당하는 24.8%는 학생과 같이 고용상태와 관련 없는 1인가구 구성원임)
- 코로나19 시기동안의 고용상태의 변화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임금근로자의 경우 2020년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시기 동안 고용상태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65.9%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임금감소 18.0%, 임금증가 8.9%, 원치 않는 무급휴직 6.3%, 해고 1.0% 순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70.5%가 매출감소를 경험하였으며, 영업시간 단축/휴업 19.7%, 변화 없음 8.2%, 매출증가 1.6% 순으로 나타남
 - 실업자·비취업자의 코로나19 이후 변화 없음 61.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8.1%는 구직 어려움으로 인한 실업기간 연장이 있었다고 응답함

〈표 4-11〉 코로나19 시기 동안의 고용상태 및 변화

분류	빈도 (명)	%	항목	빈도 (명)	%
임금근로자	678	67.8	임금증가	62	8.9
			임금감소	126	18.0
			원치 않는 무급휴직	44	6.3
			해고	7	1.0
			변화 없음	461	65.9
자영업자	53	5.3	매출증가	1	1.6
			매출감소	43	70.5
			영업시간 단축/휴업	12	19.7
			변화 없음	5	8.2
실업자·비취업자	21	2.1	구직 어려움으로 인한 실업기간 연장	8	38.1
			변화 없음	13	61.9
해당 없음	248	24.8			
합계				782	100.0

-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문화·여가 생활 변화 정도는 문화·여가 생활을 소극적으로(최소화) 하고 있음이 6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문화·여가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음 22.6%, 코로나와 관계없이 문화·여가 생활을 하고 있음 10.4%, 코로나 이후 더욱 많은 문화·여가 생활을 하고 있음 3.2% 순으로 나타남

〈표 4-12〉 코로나19 시기 동안의 문화·여가생활 변화

항목	빈도	%
문화·여가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음	226	22.6
문화·여가 생활을 소극적으로(최소화) 하고 있음	638	63.8
코로나와 관계없이 문화·여가 생활을 하고 있음	104	10.4
코로나 이후 더욱 많은 문화·여가 생활을 하고 있음	32	3.2

주: * $p < .05$, *** $p < .001$

-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사회적 관계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단절됨 47.6%(매우 많이 단절됨 5.8%, 다소 단절됨 41.8%), 늘어남 52.4%(다소 늘어남 40.3%, 매우 늘어남 12.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변화를 살펴보면 4점 척도 기준 남성은 2.66, 여성은 2.51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t=3.138$, $p=.002$)

〈표 4-13〉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시기 동안의 사회적 관계 변화

단위: 명

구분		매우 단절됨	다소 단절됨	다소 늘어남	매우 늘어남	4점 척도		t-value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28	193	218	75	2.66	.79	3.138 **
	여성	30	225	185	46	2.51	.75	

주: ** $p < .01$

3.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부산 청년 1인가구의 특성

-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노년 1인가구와 달리 부산 거주 청년 1인가구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청년 1인가구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수준을 중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기대 역시 긍정적인 편임
- 청년세대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안정이 요구됨
 - 고용, 훈련, 진학을 하지 않는 니트(NETs) 청년의 경우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1인가구를 구성하지 못함
 - 1인가구를 구성하였더라도 졸업이나 실직과 같은 개인의 여건이 변화하게 된다면 기존의 가족에게 돌아가기도 함
- 사회안전망 제공이 시급한 노년 1인가구와 달리 청년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청년 1인가구는 노년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 98% 이상의 응답자가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2)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

- 청년 1인가구는 1인가구가 가지고 있는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음
 - 다수의 청년 1인가구는 다른 1인가구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
 -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가하며, 앞으로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은 감소함
- 타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더욱 높음
 - 부산출신 1인가구의 21.1%, 울산·경남 출신 1인가구의 18.3%가 1인가구 구성 후 사회적 관계가 축소/단절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기타지역 출신 1인가구의 경우 33.6%가 사회적 관계의 축소/단절을 경험하였다고 응답
 - 부산 출신 1인가구에 비해 울산·경남 출신 및 기타지역 출신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편
 - 부산 출신 1인가구에 비해 기타지역 출신의 정서적 불안감이 높은 편
- 타 지역에서 이주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1인가구 구성 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지원정책이 주민등록상 1인가구 구성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타 지역에서 이주한 청년들의 전입 신고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코로나19가 부산거주 청년 1인가구의 삶에 미친 영향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청년 1인가구에 미친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한 편
 - 청년 1인가구의 24.8%가 사회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학생임
 - 응답자의 67.8%가 임금근로자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5.3%에 불과하여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1인가구 유지를 포기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코로나19가 청년 1인가구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친 곳은 문화·여가생활 영역
 - 청년 1인가구의 86.4%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여가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고 응답

- 성별에 따라 코로나19가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더욱 단절되었다고 느꼈으나, 남성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더욱 확장되었다고 응답
 - 이 같은 결과는 관계지향적인 여성에게 코로나19가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남성의 경우 코로나19 나타난 온라인 중심의 관계성 형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

제 5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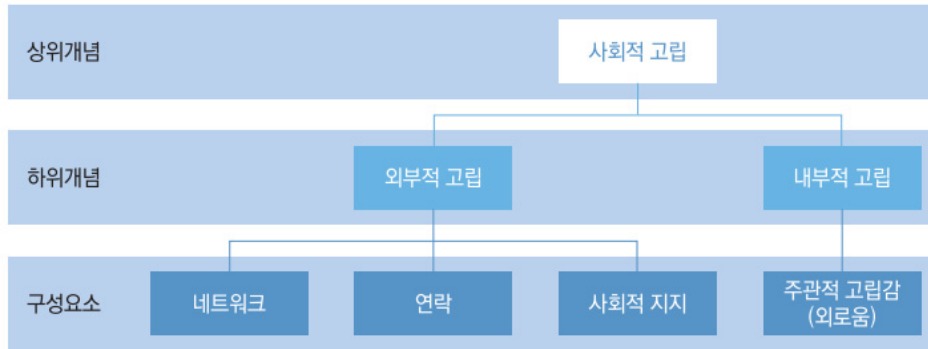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과제

1.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방향

1) 청년의 특성에 맞춘 정책 방향성 설정

- 부산 거주 청년 1인가구의 주관적 삶의 질은 높은 수준임
 - 배우자의 사별과 같이 외부 요인으로 1인가구를 구성하게 되는 노년층과 달리 청년세대는 많은 경우 취업이나 학업 등 독립할 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구성함
 - 청년 1인가구의 생활 및 주거, 건강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대표적 사회 취약계층인 노년 1인가구와는 다른 형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
 - 청년 1인가구 대부분이 삶의 질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지만, 1인가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는 존재함
 -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청년 1인가구의 경우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위기 상황에 있어 대처하기 어려움
 - 가족 구성원의 부재로 인해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을 더 느끼기 쉬움
- 사회적 고립은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회적 고립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임(유민상·신동훈, 2021)
 - 개인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정신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낮은 사회자본과

- 사회적 기술 미숙으로 인한 진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장기화된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자료: 유민상·신동훈(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그림 5-1〉 사회적 고립 개념의 구성

-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은 사회복지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성 강화를 통한 사회고립 예방정책의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연결을 통해 구성되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호혜성과 신뢰 규범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임(Putnam, 2000)
 -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밀도 있는 네트워크를 우선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위기에 처한 개인들을 네트워크에 동참시킴으로서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야 함

2)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 정부의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 방안 (I)'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1인가구 정책은 취약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1인가구 정책이 1인가구의 전환 및 확산을 장려·유도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1인가구 지원정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
- 청년의 생애주기 및 사회구조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취약계층만이 아닌 청년 1인가구 모두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이 요구됨

- 청년시기에 구성된 1인가구는 영구적 1인가구가 아닌 만큼 청년 1인가구 구성을 장려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청년 1인가구의 31.2%만이 앞으로도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자 살고자 하는 경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생애과정에서 청년 1인가구로의 독립은 성공적인 사회로의 진입의 의미하며, 대다수의 청년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건강한 청년 1인가구 구성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3)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 부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1인가구 지원정책이 필요함
 - 많은 경우 진학을 위해 1인가구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역 대학을 매개로한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함
 -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된 1인가구의 경우 삶의 질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타 지역 출신 1인가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
 - 부산 청년 1인가구의 35%가 주민등록상 1인가구가 아니며 잠재적 취약계층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인가구 구성 시 전입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
- 보편적 청년 지원정책에 1인가구 관련 정책들을 다수 포함시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을 통해 부산으로의 청년 인구 유입 증가 및 유입인구의 재유출 방지에 기여
- 부산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1인가구 지원정책이 필요
 -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성별 및 주거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남
 - 청년 1인가구 밀집 지역(금정구, 부산진구, 수영구, 남구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4) 주요 행위자 간 정책 네트워크 재구조화

- 현재 부산의 1인가구 지원정책은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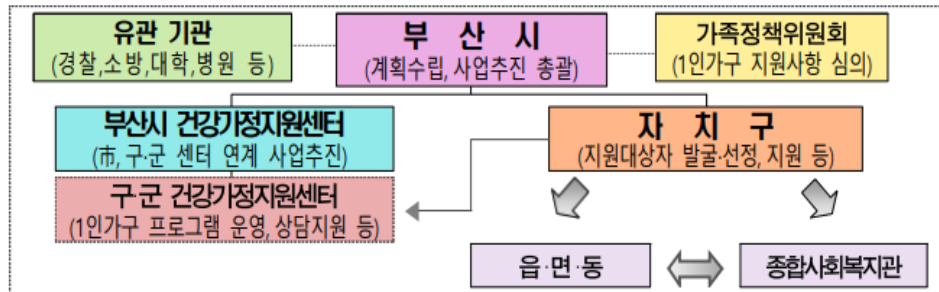
- 1인가구는 혼자서 가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다인가구와는 차별성을 지님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특성상 다인가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

○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

- 노년 1인가구의 경우 한국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반면,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삶의 질 측면에서 노년 1인가구 보다는 여유로운 상황에 놓여 있음

○ 효율적인 부산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중심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1인가구 구성원간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
- 청년층의 경우 노년층에 비해 지역사회를 통한 접근이 어려운 만큼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됨



자료: 부산광역시(2021). 제1차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그림 5-2〉 부산시 1인가구 지원 추진체계

2. 부산시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 이번 장에서 제시하는 청년 1인가구 지원 방안 및 세부 과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5-1〉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목표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청년중심의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의 청년 1인가구 정책 반영 - 주요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청년 1인가구 정책 개발
	부산 청년플랫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정책 접근성 강화	청년 개인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계획	부산이주 1인가구를 위한 웰컴 세트 제공	타 시·도지역에서 부산으로 전입하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지원 및 정보 제공
	1인가구 위케이션 지원	- 공유공간 조성을 통해 기업의 업무공간 및 숙박공간을 제공하여 위케이션 사업을 추진 - 국내 대학 학점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산살기 지원사업 수행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설치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의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운영 1인가구 특성 및 개인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 개별 1인가구의 상황에 맞는 제도와 정책,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예비 및 신규 1인가구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	독립 계획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사업 수행
	사회적 고립 청년 1인가구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	고립 1인가구 발굴을 위한 주요 행위자 간 네트워크 구성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청년 1인가구 지원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참여, 여행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1) 청년 중심의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① 추진배경

- 정부 및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계획의 경우 1인가구의 세대 및 계층별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청년 및 중장년, 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이 요구됨
- 현재 부산시의 1인가구 지원 추진체계는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2022년 현재 부산시에는 총 13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
 - 현재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가구 지원사업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1인가구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1인가구 간 교류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청년 전체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자발적으로 구성된 1인가구로 개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
 - 조사결과 부산 청년 1인가구의 94.9%가 1인가구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61.8%가 본인의 생활수준을 중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현재의 1인가구 지원정책은 취약 가구 및 노년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1인가구 정책 추진이 필요함

① 청년 1인가구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일정	문의전화
누구나	인생은 즐거워 락(樂) - 교육(대인관계기술, 이미지 메이킹) - 자조모임	4~7월 (8회기)	기장군가족센터 051-792-4772
	나도 혼자 산다 - 교육(정보제공, 취미) - 돌봄(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요리) ※ 40대까지 신청가능	5~6월 (5회기), 10~11월 (5회기)	금정구가족센터 051-513-2131
	취미생활 공유프로그램 - 자조모임	6~9월	연제구가족센터 051-851-5002
	MZ세대 건강생활백서 - 심리(검사, 컬러테라피) - 돌봄(호신술, 밑반찬 배우기) - 자조모임 및 재능기부	6~7월 (15회기)	사상구가족센터 051-328-0042
	MZ세대 홀로서기생활백서 - 교육(정리수납, 재테크, 부동산) - 심리(검사, 컬러테라피) - 자조모임 및 재능기부	10~11월 (15회기)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 돌봄(플라테스, 번지피지오 체험, 밀키트 체험 등) - 문화(SUP체험 및 해양레포츠 활동)	8~11월	수영구가족센터 051-758-3475
	슬기로운 홀로&올로 생활 - 이바구 밥상 - 집수리 기술 워크숍 - 우리동네 플로킹+제로 웨이스트 교육 - 방구석 카페 & 혼술의 정석 - 1인가구 잡담회	9월-10월 (8회기)	동구청 행복가정과 051-440-4352

자료: 부산광역시(2022). 부산시 1인가구 종합정보지

〈그림 5-3〉 부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가구 지원사업

- 취약 1인가구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청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보편적 1인가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 최근 만혼 및 비혼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청년세대의 1인가구 구성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임

- 대부분의 청년 1인가구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1인가구를 구성하며, 영구적 1인가구로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1인가구 지원정책이 필요
- 경제적 측면에서 청년 1인가구는 노년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위치하지만, 1인가구라는 관계구조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서 자유롭지는 못함
- 종합하면 노년층 1인가구와 달리 청년 1인가구는 자립할 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선택하는 자발적인 가구형태이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편적 1인가구 지원정책이 필요함

② 주요내용

-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의 청년 1인가구 정책 반영 필요
 - 청년의 권익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2차 년도(2024~2028)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 중
 - 청년의 다양성 반영 및 청년 역량 강화,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 1인가구 지원 과제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청년 1인가구 정책 개발
 - 부산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인 부산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의 자립 및 미래 도약을 위한 1인가구 지원정책 개발 및 수행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수요 조사 수행

③ 기대효과

- 가구특성 중심의 1인가구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부산지역 및 청년세대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및 수행이 가능
- 특수·취약 계층 중심의 지원정책이 아니라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서 1인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자립을 지원
- 기존 청년정책과 중복되는 지점들을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재고

(2) 부산 청년플랫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정책 접근성 강화

① 추진배경

- 현재 운영 중인 부산 청년플랫폼 ‘청년G대’는 청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정보를 단순 나열하는 형태로 운영 중
 -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영역인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문화/청년공간, 참여 분야의 정책들을 단순 나열하는 형태로 제시되어 실제적으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찾기가 어려움

청년G대 부산청년정책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문화/청년공간	참여	부산청년학교
청년정책 추진전략 청년G대 브랜드 2021 부산청년주간 2020 부산청년주간 2021 청년 행복박스 청년정책문자알림 서비스 온라인 롤 견의하세요 공지사항 자료실	청년부산잡스 청년 디딤돌 카드 정장 대여서비스 (드림웃장)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청년 두드림 센터 부산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 창업지원	머물자리론 머물자리론 소개 및 신청 머물자리론 신청목록 신청제출 공지사항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소개 및 신청 공지사항 신혼부부 주거지원 행복주택 햇살동지 드림아파트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년 부비론 청년 마음이음 청년 마음건강 증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학자금 대물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청년 금융 폭강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청년 희망신용상당센터	청년문화 공간 지원 청년문화 활동 지원 청년문화 인력 양성 문화예술 공모 신청 문화예술 관련 홈페이지 청년공간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정책 네트워크 소개 공지사항 자료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인참여예산 청년참여 청년 프로그램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부산청년학교 부산 청년 리빙랩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전제보기 전문분야 스마트에이 미래기술기기 지능정보서비스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복합 기타 일반분야

자료: 부산광역시 청년정책플랫폼. <https://www.busan.go.kr/young/index>, 검색일(2022.07.20.)

〈그림 5-4〉 부산광역시 청년정책플랫폼 청년G대 홈페이지

- 부산시 거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는 부산시청 홈페이지의 1인가구 지원 페이지 내 ‘부산시 1인가구 종합정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
 - 1인가구 종합정보지인 ‘모여봐요 부산시 1인가구’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산시의 다양한 사업의 정보를 4대 분야(소득과 돌봄, 주거 및 안전, 신체·정신건강, 관계향상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공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임

② 주요내용

- 청년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재고
 - 현재 부산시의 ‘1인가구 종합정보지’를 통해서서는 지역 및 연령, 성별, 소득에 따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다양한 청년 1인가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부록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명칭	생애주기			목
	청년	중장년	노년	
관계형상 및 커뮤니티				
1 1인가구 관계형상을 위한 프로그램	○	○	○	22-25
2 장노년 액티브 에이징 활동지원		○	○	26
3 사회적 고립가구 집단활동 프로그램	○	○	○	26
4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	27
5 커뮤니티 공간	○	○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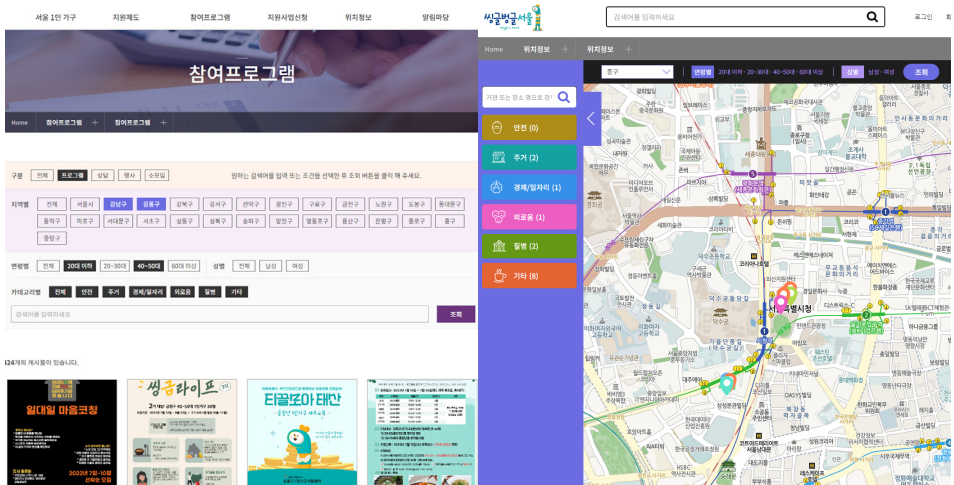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연락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	가족센터	전화
부산광역시	051-330-3406	금정구	051-513-2131
부산진구	051-802-2900	기장군	051-792-4750
사하구	051-203-4588	동래구	051-506-5766
해운대구	051-782-7002	사상구	051-328-0042
		서구	051-241-6200
		수영구	051-758-3475
		연제구	051-851-5002
		영도구	051-414-9605

자료: (원)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페이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3>, (검색일 2022.07.20.)
(오) 부산광역시(2022). 부산시 1인가구 종합정보지

〈그림 5-5〉 부산시의 1인가구 지원페이지 및 1인가구 종합정보지

- 서울시의 경우 1인가구 포털인 ‘쌍글빙글 서울’을 구축, 거주 지역 및 연령, 성별, 관심분야를 설정하여 필요한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검색하고, 포털을 통해 참여가 가능함



자료: 싱글벙글 서울(서울시 1인 가구 포털). <https://1in.seoul.go.kr/>, 2022.07.12. 기준

〈그림 5-6〉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및 1인가구 지원정책 검색 결과

③ 기대효과

- 뉴미디어 친화적인 청년세대에게 효과적인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이 가능
- 개인의 거주지역 및 연령, 성별, 소득 등 계층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통해 사업 참여의 가능성 재고

2)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계획

(1) 부산 이주 1인가구를 위한 웰컴 세트 제공

① 추진배경

- 부산시는 저출생·고령화 현상 뿐 만 아니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현상 심화문제에 당면함
 - 청년인구의 유출은 중장기적으로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력의 저하, 부양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부담 증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위기, 수도권 집중현상의 강화로 인한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함
 - 특히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현상은 전체 유출인구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
-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청년 1인가구일 경우 주민등록상 1인가구를 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조사결과 연령이 어리고, 1인가구로서 생활 기간이 짧으며,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 부산 거주 청년 1인가구의 41.6%가 부산 이외지역 출신임
 - 최종 교육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볼 때 울산 및 경남 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사람이 30%, 기타지역의 경우 11.6%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이 많은 경우 1인가구를 구성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적극적인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 인구의 부산 유입 촉진 및 유입된 청년인구의 재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
- 대다수의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준이 주민등록상 1인가구 여부이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 구성 시 세대분리를 장려할 유인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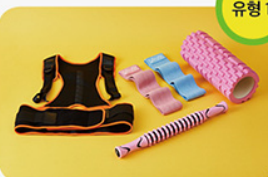
② 주요내용

- 서울시의 경우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사업’을 시행
 - 1인가구 웰컴박스는 서울시 청년 정책을 소개하는 안내책자와 더불어 1인가구 청년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됨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내로 서울시로 전입 신고한 만 19~29세 1인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과정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실태 조사를 병행

유형 1



나를 키우는 홈세트

요가밴드, 마사지스틱,
마사지 폼롤러,
바른자세 교정밴드

유형 2



나를 채우는 식기세트

1인 식기세트(밥공기1, 대접1,
머그컵1, 찬기2, 소스볼1),
수저세트, 식탁매트

유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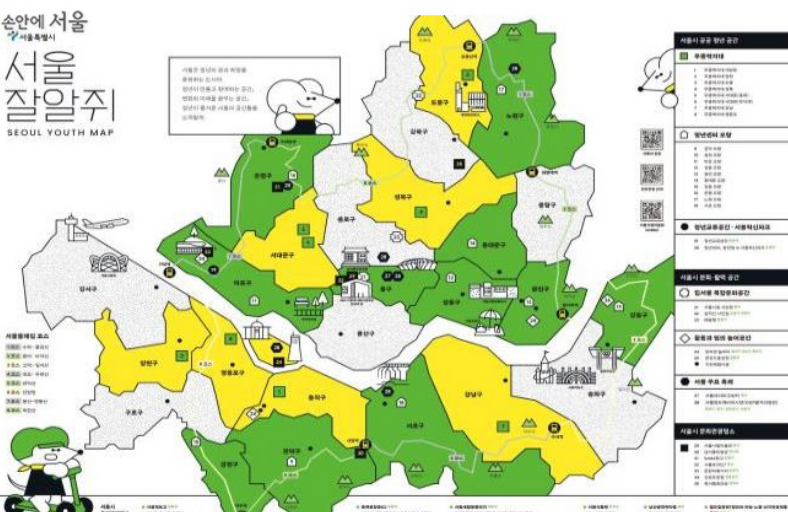


나를 가꾸는 홈인테리어세트

화분 마크라메, 컵걸이,
비커 화병(톨립 2송이),
드림 캐처

*** 공통 제공: 구급함, 안내책자, 안내지도, 안전키트(방염매트, 호루라기, 안전매뉴얼), 칫솔**

서울잘알쥬
SEOUL YOUTH MAP



자료: 쌍글벙글 서울(서울시 1인가구 포털). <https://1in.seoul.go.kr/>, 검색일 (2022.07.20.)

〈그림 5-7〉 1인가구 전입청년 웰컴박스 및 전입청년 맞춤형 안내 지도

- 타 시·도에서 부산으로의 전입하는 청년 1인가구에게 부산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 및 정보 제공
 - 1인가구에게 필요한 물품(상비약, 주방용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를 장려

- 타 지역 출신 청년에게 부산지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부산지역에서의 생활 및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 기대효과

- 1인가구 구성 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장려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적극적인 1인가구 지원정책 수행이 가능
- 부산으로 전입한 청년 1인가구의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청년 인구 유입 증가 및 재유출 방지에 기여

(2) 1인가구 워케이션 지원

① 추진배경

-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원격 환경을 통해 근무를 하는 유연근무 프로그램
- 2022년 부산창조혁신센터가 진행한 B.Startup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의 60명이 선정되었을 정도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음
- 현재 워케이션 지원사업의 경우 부산지역의 숙박업소를 중심의 단기 프로젝트의 성격이 강한 상황

② 주요내용

- 공유공간 조성을 통해 기업의 업무공간 및 숙박공간을 제공하여 워케이션 사업을 지속·장기적으로 계획 및 추진
- 기업, 직장인 뿐 만 아니라 국내대학 학점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산 살기 지원사업도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③ 기대효과

-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부산을 청년 1인가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주요 기업과의 지속적인 사업 연계를 통해 부산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 유도

3)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설치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1)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① 추진배경

- 노년 1인가구와 달리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볼 수 없음
 - 배우자 사별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1인가구를 구성하게 되는 노년층과 달리 청년세대는 취학이나 취업같이 독립할 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구성
 - 따라서 청년 1인가구의 생활 및 주거, 건강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사회 취약계층인 노년 1인가구와는 다른 형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청년 1인가구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이나 주거환경의 어려움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고립임
- 사회적 고립이라는 측면에서 1인가구는 다른 가구 형태보다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정책 집행이 필요
 - 부산시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1인가구 지원정책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1인가구 지원 이외에도 아이 돌봄,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정 형태에 대한 보편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성 및 효과성이 떨어짐
- 서울시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1인가구 지원센터 및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운영 중
 - 2019년 서초구에서 처음 1인가구 지원센터가 개소한 이후 2022년 현재 강남구, 강동구, 성동구에서 1인가구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이 운영
 -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 및 심리상담사가 상주중에 있으며,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② 주요내용

-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의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운영
 - 부산시 청년 1인가구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
 - 2020년 기준 부산진구에는 58,924가구, 해운대구 44,867가구, 사하구

- 39,817가구, 금정구 36,779 가구의 청년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음
- 반면, 중구의 경우 단 10,007가구의 청년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강서구 13,410가구, 동구 15,508가구, 서구 18,384가구 순으로 나타남
- 청년 1인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가능
-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1인가구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
- 운영 과정에서 타 지역 거주 1인가구원, 1인가구가 아닌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 역시 여러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차등적으로 구성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에 집중
- 1인가구의 특성 및 개인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 1인가구 생활 지원
 - 공구도서관: 집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다양한 공구 무료대여
 - 코인세탁소: 세탁기 및 건조기 운영
 - 주거 관련 교육: 부동산, 집수리 관련 활동 등
 - 상담 활동: 주거상담, 재무관리상담, 법률 상담, 정리수납 컨설팅 등
 -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 공유부엌: 식사해결을 위한 요리활동 및 음식 나눔, 같이 식사를 진행
 - 소모임 활동을 위한 공간 대여 및 지원
 - 북카페, 쉼터, 공부방 등 공간 대여
 - 신체·정신 건강, 안전 지원
 - 개인심리상담(멘토링)
 - 건강 119: 입·퇴원 및 통원, 단기 간병 등 건강 관련 도움 제공
 - 반려식물·동물을 위한 지원
 - 1인가구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심 서비스 운영
- 개별 1인가구의 상황에 맞는 제도와 정책,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 ③ 기대효과
 -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오프라인 공간을 토대로 사회적 네트워크 확산에 기여
 - 고립위험 가구 발굴 및 효율적·적극적 정책 지원 가능

(2) 예비 및 신규 1인가구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

① 추진배경

- 현재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및 아동권리보장원 연계 의뢰자로 정의됨
 - 2021년 기준 부산시의 자립준비청년은 총 1,034명 임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립지원통합 서비스,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 중

〈표 5-2〉 부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 현황

단위: 명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위탁	합계
563	50	421	1,034

자료: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busanjarip.or.kr/>, 검색일 (2022.07.21.)

주: 2021.12. 기준

- 송사리·정현주(2020)의 연구에 따르면 자립지원 프로그램 및 자립지원 서비스가 개인의 자립역량 기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예비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자립지원서비스 운영을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성공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② 주요내용

- 1인가구가 되기를 희망하거나, 앞으로 독립할 계획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독립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교육 및 상담 사업 진행
 - 자립 준비 청년 모임을 통해 심리 및 정서 지지를 위한 인적 관계 형성
 - 자립 경험 공유 및 관련 자립을 위한 정보 제공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 교육
 - 1인가구를 위한 지원정책 정보 공유

③ 기대효과

- 검증된 정보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청년 자립 환경 조성
- 청년 1인가구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사회적 고립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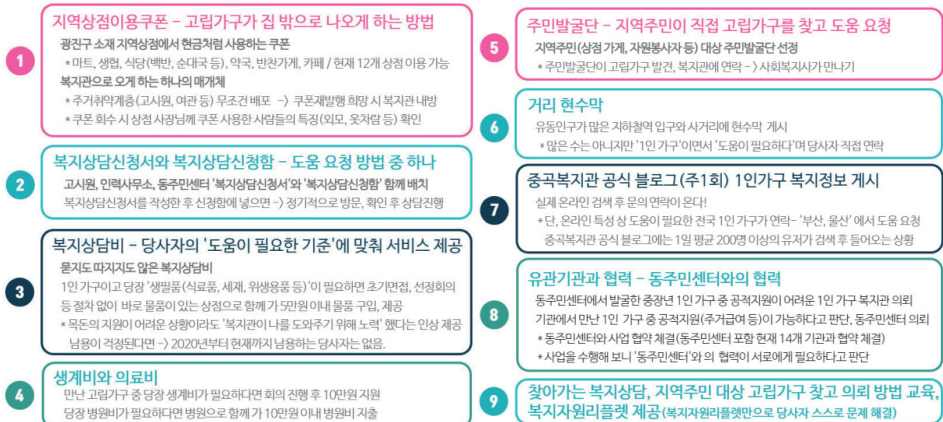
(3) 사회적 고립 청년 1인가구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

① 추진배경

- 1인가구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는 사회적 고립임
 - 사회적 고립이란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함(유민상·신동훈, 2021)
 - 다른 가족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 청년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1인가구 지원센터, 복지기관, 종교기관 등),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고립 가구 발굴 노력이 필요
 - 사회적 고립가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와 접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능동적인 탐색이 필요

② 주요내용

- 고립 1인가구 발굴을 위한 주요 행위자 간 네트워크 구성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역주민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위험가구를 탐색
 -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고립가구에 대한 점검을 진행
 - 주민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복지공동체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 수행
-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고립가구 탐색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진행
 - 통계자료를 활용한 지역 1인가구 현황 파악
 - 구청 및 유관기관을 통해 1인가구 지원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실무자가 인지하는 1인가구 상황 공유 및 논의
 - 고시원, 인력사무소, 숙박시설 등 취약 1인가구 밀집 시설 방문
- 고립가구 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지원 특화사업 수행



자료: 서울복지재단(2022). 사회적 고립대응, 충분한가? 제2차 현장 실천가 관점으로

〈그림 5-8〉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의 고립가구 발견 전략



자료: 서울복지재단(2022). 사회적 고립대응, 충분한가? 제2차 현장 실천가 관점으로

〈그림 5-9〉 청주산남2 마이홈센터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체계

③ 기대효과

-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부정적 생애경험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년에게 사전적 대응을 수행
- 적극적인 고립 가구 탐색을 통해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예방

4)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청년 1인가구 지원

① 추진배경

- 코로나19 이후 청년 1인가구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
 -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문화여가 활동에 어려움을 심하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코로나19 시기에 사회적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 변화된 방역정책에 맞추어 대면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청년 1인가구는 성별, 소득,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음
 -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지원할 필요가 있음

② 주요내용

-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참여, 여행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송정연·박근화, 2021; 정영금·윤소영, 2018)
 - 전시 및 공연 관람 지원
 - 1인가구 인문학 강좌
 - 1인가구를 위한 힐링·명상 프로그램
- 부산지역의 생활문화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1인가구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③ 기대효과

- 청년 1인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통해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 가능성 재고 및 사회적 고립 예방

3. 연구 요약 및 시사점

1) 부산 청년 1인가구의 특성

- 부산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은 노년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편임
 -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이 1인가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취학이나 취업 등 경제·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개인의 선택을 통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의미
 - 노년 1인가구의 경우 건강 문제 및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지만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이러한 지점에서 문제점을 느끼지 않음
- 높은 삶의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청년 1인가구 역시 1인가구가 가지는 구조적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
 - 홀로 생활해야하는 1인가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청년 1인가구 역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독 및 외로움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함
 - 많은 수의 청년 1인가구는 다른 1인가구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타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의 경우 1인가구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음
 - 부산 청년 1인가구의 41.6%가 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이후 부산에서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음
 - 부울경 이외의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 단절을 더욱 많이 경험하며, 현재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코로나19는 문화·여가생활 측면에서 부산 청년 1인가구를 더욱 고립시킴
 - 청년 1인가구의 86.4%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및 여가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 함
 - 여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 단절을 경험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청년 1인가구에 미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임

2) 성공적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 청년 1인가구 정책은 ‘1인가구’가 아니라 ‘청년’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청년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임
 - 청년 1인가구 정책의 기획 및 추진에 있어 현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보다는 청년정책기관 중심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필요
- 1인가구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정부의 1인가구 지원정책은 소극적 지원정책의 성격이 강함
 - 청년 1인가구의 증가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핵심 원인은 아님
 - 건강가족기본법에 담겨있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적 시각이 적극적 1인가구 지원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수도권으로의 부산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부산으로의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적극적인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
 - 취업·진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 이주는 1인가구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이미지 형성에 기여 가능
- 효율적인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공간 중심의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
 - 청년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고립예방 및 사회적 연결망형성 지원임
 - 1인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의료시설, 기업, 가족, 지역사회의 활동가 등 다양한 행위들 사이의 유기적 연대가 필수적임
 -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사회적 고립방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이 필요
- 코로나19는 청년의 사회·문화적 고립을 심화시켰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은 사회구조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 구성원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킴
 -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문화 및 여가 정책을 통해 청년 1인가구와 다

른 청년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를 모색

-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
 - 오늘날 청년들은 개인의 주체意識이 명확하고 성공에 대한 의욕이 강하며, 사회생활을 중요시 여기고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함
 - 따라서 청년 1인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한 일방적 지원 정책은 적절하지 않으며,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Abstract

A Study on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Young One-person Household Members' Life in Busan after COVID-19

In Busan, due to change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the rate of one-person households rapidly increased and reached 32.4% of all households in 2020. This study focuses on young one-person households to explore ways to secure the youth population as the outflow of the youth population from Busan has continued.

This study used an empirical survey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young one-person households in Busan and proposed measures to be taken at the municipal level for those households. In that process, this study explored the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young one-person households in Busan,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policies designed to support one-person households from domestic and overseas case studies. After that, young one-person households living in Busan were interviewed to find out about their life and housing, economic life, health, leisure life, social relationships, safety, their perception of marriage, changes after COVID-19, and their perception of one-person household policie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like elderly one-person household members, who are perceived to be the socially weak, young one-person household members in Busan were highly satisfied in terms of social and economic life. This is construed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a certain level of social and economic stability is required for the youth to become independent of their parents. Second, unlike elderly one-person households that urgently need to be provided with a social safety net, it seemed that a policy to prevent social isolation is needed more for young

one-person households. Particularly, many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members recognized the need for exchanges with other one-person household members. Considering that young people who have moved into Busan are more likely to be socially isolated, they need to be provided with policy support. Third, COVID-19 was negatively affecting young one-person household members in the areas of culture and leisure. About 86.4% of them responded that they could not have cultural or leisure activities due to COVID-19, and females felt more disconnected from social relationships due to COVID-19 than men.

Lastly, policy tasks of Busan for young one-person household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direction of the policies needs to be set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Policies to support young one-person households are required to focus on the prevention of social isolation in terms of relationships, rather than social welfare. Second, a paradigm shift in household support policies is required in order to provide active support for young one-person households.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specific to Busan by establishing a policy network focusing on youth organizations and promoting policies to support young one-person households based on the network.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I). 2020.
- 김세현. 부산지역 1인 가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제. 부산발전포럼. 제 192권(2021). 94-101
- 김태완·이주미. 코로나 19 이후 1인 가구 소득 변화: 가계동향조사 기준.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 399권(2021). 1-10.
- 문정희·이재정·김형균.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 부산여성가족 개발원·부산복지개발원·부산발전연구원. 2017.
- 부산광역시. 부산시 1인가구 종합정보지. 2022.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 고립대응, 충분한가? 제2차 현장 실천가 관점으로. 2022년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 포럼 자료집. 2022.06.29.
- 성미애·진미정·장영은·손서희. 코로나19에 따른 1인 가구의 일상생활 변화 및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가족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5권 3호(2020). 3-20.
- 송사리·정현주. 자립지원 서비스가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역량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제 18권 4호(2020). 75-88.
- 송정연·박근화.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 유민상·신동훈.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 이미애. 일본의 고독사 현상과 대책에 대한 과제. 일본어문학. 제 63권(2013). 349-370.
- 정보람·윤소영·이성우.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 정영금·윤소영. 1인 가구의 세대별 여가행태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 22권 4호(2018). 1-15.
- 조근식. 외로움 담당관 제도에 관한 기초 연구. 강원연구원, 2020.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통계청. 장제가구추계. 2017.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Worcestershire: the benefits of a dedicated loneliness service. <https://www.local.gov.uk/case-studies/worcestershire-benefits-dedicated-loneliness-service>. 2021.10.18.

Putnam, R.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2000.

UK Government.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2018.10.

UK Government. Emerging Together: the Tackling Loneliness Network Action Plan, Policy paper. 2021.5.8.

UK Government. Loneliness Annual Report-The first Year. 2020.

健康長寿ネット. 地域ぐるみで進める「孤独死ゼロ作戦」! (千葉県松戸市常盤平団地. https://www.tyojyu.or.jp/net/kaigo-seido/jirei/kodokushizer_osakusen.html. 2020.05.29.

内閣官房 孤独・孤立対策担当室. 孤独・孤立対策推進会議. 孤独・孤立対策の重点計画概要. 2021.

『건강가정기본법』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05.26).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페이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3> (검색일: 2022.07.20.).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busanjarip.or.kr> (검색일: 2022.07.21.)

부산광역시 청년정책플랫폼. <https://www.busan.go.kr/young/index> (검색일: 2022.07.20.)

쌍글벙글 서울(서울시 1인 가구 포털). <https://1in.seoul.go.kr> (검색일: 2022.07.12.).

통계청 설명자료.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qst/2/2/index.board?bmode=read&aSeq=71992(검색일: 2022.07.12.).

LifeLine community resources 홈페이지. <http://communityresources.co.uk>(검색일: 2022.07.04.).

Plunkett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plunkett.co.uk/talking-shop-oxfordshire> (검색일: 2022.07.04.).

Simply Limitless 홈페이지. <https://www.simply-limitless.org> (검색일: 2022.07.04.).

부록

1.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부산지역 청년 1인가구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부산연구원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및 정책 욕구를 조사하여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오직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60조(비밀유지 등)에 의해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5월

■ 연구기관 : (재)부산연구원

■ 조사기관 : (주)다산리서치 이희수실장 TEL. 051-862-1606 / info@dasan.re.kr

이번 조사에서 1인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응답자 이름		응답자 전화번호	
면접원			

DQ1. 귀하는 현재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거주·생활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 종료

S. 응답자 특성

S1.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2. 출생년도 _____ 년 출생 ⇒ 1988년~2004년생 이외 응답자 조사종료

① 24세 미만(1997~2004년) ② 25~29세(1993~1997년) ③ 30~34세(1988~1992년)

S3. 현재 거주지 권역

① 중부산 (⑪ 중구 ⑫ 동구 ⑬ 서구 ⑭ 영도구 ⑮ 부산진구 ⑯ 연제구 ⑰ 남구 ⑱ 금정구 ⑲ 동래구)
② 동부산 (⑳ 해운대구 ㉑ 기장군 ㉒ 수영구)
③ 서부산 (㉓ 북구 ㉔ 사상구 ㉕ 사하구 ㉖ 강서구)

S4. 혼인상태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S5. 학력

- ①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재학 포함)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2~3년제) 재학 중 (휴학 포함) ④ 전문대(2~3년제) 졸업
 ⑤ 대학교(4·6년제) 재학 중 (휴학 포함) ⑥ 대학교(4·6년제) 졸업
 ⑦ 대학원 석사 졸업(재학 및 휴학 포함) ⑧ 대학원 박사 졸업(재학 및 휴학 포함)

S6. 최종 교육기관(최근 졸업한 학교) 소재지

-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⑱ 해외

A. 1인가구의 삶

A1. 귀하는 현재 주민등록상 1인가구 입니까?

- ① 주민등록상 1인가구임
 ② 주민등록상으로는 1인가구 아님

A2. 귀하는 혼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 1인가구 구성 뒤 잠시 다인 가구로 생활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

A3. 현재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학원과의 거리 때문에
 ②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③ 취업/진학/고시 등의 미래 준비 때문에
 ④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⑤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의 상황(이사, 해외이주, 결혼, 이혼, 사망 등) 때문에
 ⑥ 개인적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
 ⑦ 기타()

A4.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가족)와 어떠한 상태입니까?

- ① 가족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음
 ② 가족으로부터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음
 ③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④ 가족에게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⑤ 가족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A5. 귀하는 1인가구가 정책/제도/법적으로 다인 가구에 비해 불이익 혹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 세금, 복지 정책 등)

- ① 매우 많은 불이익을 받음 ②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음 ③ 다인가구와 차이 없음
④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음 ⑤ 매우 많은 혜택을 받음

A6. 귀하는 현재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 ① 자유로운 삶 향유와 의사결정 ② 나만을 위한 여가시간 활용
③ 자유로운 연애관계 ④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부양·돌봄 부담 없음
⑤ 일 또는 직장에서의 몰두 ⑥ 좋은 점 없음
⑦ 기타()

A7. 귀하는 현재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입니까?

- ① 식사 해결 ② 영화보기, 운동하기 등 문화체육생활
③ 여행 등 여가활동 ④ 주거 관련 활동(집 구하기, 이사 등)
⑤ 가사 및 집안일 처리(시설관리) ⑥ 응급상황 및 건강 관련 어려움(건강검진, 질병 등)
⑦ 사회적 편견(시선) ⑧ 일상생활 활동(쇼핑, 세탁물처리, 고지서 납부 등)
⑨ 불편한 점 없음 ⑩ 기타()

A8. 귀하는 1인가구로서 가장 불안한 점이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불안감 ②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③ 계속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④ 자녀를 갖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
⑤ 노후에 대한 염려 ⑥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
⑦ 사회적 소외에 대한 불안감 ⑧ 함께 살지 않는 가족(부모 등)에 대한 걱정
⑨ 불안한 점 없음 ⑩ 기타()

A9. 만약 조건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이루길 원하는 가구·거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지금처럼 혼자 ② 원래의 가족과 함께
③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④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⑤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각자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며 함께 사는 주거공동체 등)
⑥ 잘 모르겠음
⑦ 기타()

A10. 귀하는 현재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하는 편 ③ 만족하는 편 ④ 매우 만족

B. 주거

B1.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일반, 다가구) ② 아파트(주상복합)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 주택
⑤ 오피스텔 ⑥ 고시원 ⑦ 기숙사 및 사회시설
⑧ 비거주용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⑨ 기타()

B10.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택 주변 환경이 혼자 살기에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안함 ② 약간 불안함 ③ 대체로 안전함 ④ 매우 안전함

⇒ ③, ④ 선택 시 C1 로

B10_1. 현재의 주거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주시요.

1순위		2순위	
-----	--	-----	--

- ①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
 ② 주택 관리인의 부재
 ③ 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 존재
 ④ 골목길, 주택 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
 ⑤ 지하, 반지하, 저층 등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
 ⑥ 남녀 공용주거로 인한 불안감
 ⑦ 대중교통으로부터의 먼 거리
 ⑧ 골목길 안전 시설물 부족(가로등, CCTV 등)
 ⑨ 비상 시 대처하기가 어려움
 ⑩ 기타()

C. 경제생활

C1. 귀하는 지난 일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주 18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에 해당

- ① 일을 하였음 ⇒ C2로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C2로
 ③ 일을 하지 않았음

C1_1. 귀하는 지난 한 달 동안 구직을 시도하셨습니까?

- ① 구직을 시도하였고, 일자리가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음 ⇒ C3으로
 ② 구직을 시도하였지만, 일자리가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음 ⇒ C3으로
 ③ 구직을 시도하지 않았음

C1_2.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을 하고 싶지 않음 ② 원하는 일자리가 없음
 ③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 ④ 가사 및 가족 돌봄으로 인해
 ⑤ 학교 재학 및 학업을 수행 중 ⑥ 구직을 위한 준비(공무원·자격증 시험 준비) 중
 ⑦ 기타()

⇒ 응답 후 C3으로

- ① 50만 원 미만 ② 50-100만 원 미만 ③ 100-150만 원 미만
 ④ 150-200만 원 미만 ⑤ 200-250만 원 미만 ⑥ 250-300만 원 미만
 ⑦ 300-350만 원 미만 ⑧ 350-400만 원 미만 ⑨ 400-450만 원 미만
 ⑩ 450-500만 원 미만 ⑪ 500만 원 이상

C5. 월평균 생활비 지출금액은 얼마입니까? (저축 제외)

- ① 50만 원 미만 ② 50-100만 원 미만 ③ 100-150만 원 미만
 ④ 150-200만 원 미만 ⑤ 200-250만 원 미만 ⑥ 250-300만 원 미만
 ⑦ 300-350만 원 미만 ⑧ 350-400만 원 미만 ⑨ 400-450만 원 미만
 ⑩ 450-500만 원 미만 ⑪ 500만 원 이상

C6. 귀하는 현재 부채(대출, 카드 연체 포함)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C7 으로

C6_1. 부채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규모가 큰 순서대로 2순위 까지 선택하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내 집 마련 ② 전·월세 보증금 마련 ③ 부동산·금융 투자자금 마련
 ④ 사업자금(창업) 마련 ⑤ 학자금·교육비 마련 ⑥ 결혼자금 마련
 ⑦ 의료비 마련 ⑧ 생활비 마련 ⑨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⑩ 자녀 양육비 ⑪ 기타()

C7. 평소 생활을 종합해 볼 때, 현재 귀하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층	상층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C8. 3년 뒤 귀하의 생활수준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빠질 것 ② 다소 나빠질 것 ③ 변화 없을 것 ④ 다소 좋아질 것 ⑤ 매우 좋아질 것

D. 건강

D1. 현재 귀하가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전혀 건강하지 않음 ② 별로 건강하지 않음 ③ 대체로 건강함 ④ 매우 건강함

D2. 현재 귀하가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전혀 건강하지 않음 ② 별로 건강하지 않음 ③ 대체로 건강함 ④ 매우 건강함

D3. 귀하의 평소 식생활에 관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기해 주십시오.

평소 식생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같이 식사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노력함	①	②	③	④
2)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위해 노력함	①	②	③	④
3) 하루에 한 번 이상 끼니를 거르곤 함	①	②	③	④
4) 간편식 및 반조리 식품(라면, 인스턴트 식품, 레토르트 식품 등)을 이용함	①	②	③	④
5) 원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 함	①	②	③	④
6) 반찬가게 등에서 조리된 음식을 구매함	①	②	③	④
7) 배달 음식을 구매함	①	②	③	④

D4. 귀하는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십니까?

- ① 전혀 안 함 ② 3개월에 1~2회 ③ 한 달에 1~2회
④ 일주일에 1~2회 ⑤ 일주일에 3~4회 ⑥ 거의 매일

D5. 귀하는 다음 사항을 어느 정도로 겪고 계십니까?

문항	전혀 느끼지 않음	아주 가끔 느낌 (월 1~2회)	가끔 느낌 (주 1~2회)	자주 느낌 (주 3~4회)	매일 느낌
1) 외로움	①	②	③	④	⑤
2) 불안함	①	②	③	④	⑤
3) 우울함	①	②	③	④	⑤

D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 이상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F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이나 단체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셨습니다?

문항	전혀 가지 않음	일년에 한/두번	한 달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 자원봉사활동	①	②	③	④
2) 종교모임활동	①	②	③	④
3) 교육모임활동 (자기계발, 스터디 그룹 등)	①	②	③	④
4) 운동모임활동	①	②	③	④
5) 문화모임활동 (독서모임, 예술동호회 등)	①	②	③	④
6) 사회단체활동 (환경, 인권단체 등)	①	②	③	④
7) 지역단체활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협동조합 등)	①	②	③	④

F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몇 명 있으십니까?

문항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1) 가족/친척	①	②	③	④	⑤
	2) 친구·이웃·직장동료	①	②	③	④	⑤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1) 가족/친척	①	②	③	④	⑤
	2) 친구·이웃·직장동료	①	②	③	④	⑤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1) 가족/친척	①	②	③	④	⑤
	2) 친구·이웃·직장동료	①	②	③	④	⑤

F5. 다음은 귀하의 가족, 친구, 이웃, 지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항	거의 하지 않음	한 달 1~2회 정도	일주일 1회 정도	일주일 2~3회 정도	거의 매일
1) 따로 사는 가족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따로 사는 가족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	①	②	③	④	⑤
3) 친구·이웃·지인들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친구·이웃·지인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	①	②	③	④	⑤

F6. 귀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 F7 로 ② 아니다

F6_1. 귀하는 반려동물을 키울 의사가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F7 로

F6_2. 귀하가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적 부담(바빠서 함께 할 수 없음) ② 경제적 부담(의식주·병원비 등)
 ③ 주거지에서 사육이 불가능함 ④ 위생문제(배변, 털날림 등)
 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부담 ⑥ 이별에 대한 두려움
 ⑦ (출장·여행 등으로 인한) 장시간 부재 시 돌봄이 어려움 ⑧ 기타()

F7. 귀하는 반려동물이 1인가구 구성원의 정신건강(외로움, 우울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G. 안전

G1. 다음은 귀하의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O”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는 집은 혼자 살기에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사는 지역(동네)은 혼자 살기에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주거지역 선택 시 안전한 지역인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사는 지역은 경찰의 방법 활동이 활발하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사는 지역은 골목길에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사는 지역은 골목길에 가로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위험 발생 시 대처요령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G2. 귀하가 생각하기에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집 안 ② 주거지 내부 계단 등 은폐장소 ③ 주차장-주거지 이동공간
 ④ 대중교통-주거지 이동 공간 ⑤ 유흥가 밀집지역 ⑥ 공중화장실
 ⑦ 지하주차장 ⑧ 엘리베이터 내부 ⑨ 공원, 산책로
 ⑩ 대중교통 수단 내부 ⑪ 기타()

G3. 혼자 사는 것이 2인 이상 가구보다 범죄에 더욱 노출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H. 결혼에 대한 인식

H1.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② 안해도 상관없다 ③ 하는 편이 좋다 ④ 반드시 해야 한다

H2. 귀하는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없는 것이 좋다 ② 없어도 무관하다 ③ 있는 것이 좋다 ④ 꼭 있어야 한다

H3. 현재 결혼한 상태입니까?

- ① 예 ⇒ I1로 ② 아니오 ⇒ H3_1로

H3_1.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예 ⇒ I1로 ② 아니오 ⇒ H3_2로 ③ 모르겠음 ⇒ I1로

H3_2. 귀하가 결혼을 계획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함 ③ 직업의 불안정
 ④ 출산/자녀양육의 부담 ⑤ 결혼 후 거주지 마련이 어려움 ⑥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⑦ 결혼보다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⑧ 결혼할 생각이 없음(비혼주의)
 ⑨ 아직 결혼을 하기에 이른 나이임 ⑩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해(교육, 입시, 고시준비 등)
 ⑪ 기타()

I. 코로나19 이후 변화

I1. 2020년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시기 동안 귀하의 고용상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1) 상태	2) 상태변화(중복 응답 가능)
① 임금근로자	① 임금증가 ② 임금감소 ③ 원치 않는 무급휴직 ④ 해고 ⑤ 변화 없음
② 자영업자	① 매출증가 ② 매출감소 ③ 영업시간 단축/휴업 ④ 폐업 ⑤ 변화 없음
③ 실업자·비취업자	① 구직 어려움으로 인한 실업기간 연장 ② 변화 없음
④ 해당없음(ex: 학업, 병역 등)	

① 매우 악화될 것 ② 다소 악화될 것 ③ 다소 좋아질 것 ④ 매우 좋아질 것

- ① 문화·여가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음
- ② 문화·여가 생활을 소극적으로(최소화) 하고 있음
- ③ 코로나와 관계없이 문화·여가 생활을 하고 있음
- ④ 코로나 이후 더욱 많은 문화·여가 생활을 하고 있음

① 매우 줄어든 것 ② 다소 줄어든 것 ③ 다소 활발해질 것 ④ 매우 활발해질 것

① 매우 많이 단절됨 ② 다소 단절됨 ③ 다소 늘어남 ④ 매우 늘어남

① 매우 많이 단절될 것 ② 다소 단절될 것 ③ 다소 늘어날 것 ④ 매우 늘어날 것

① 예 ② 아니오 $\Rightarrow$ 18 로

1순위		2순위	
-----	--	-----	--

- ①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
②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
③ 빈번히 울리는 긴급재난문자
④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
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계단절 및 소통감소
⑥ 소득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
⑦ 가족/친구/지인의 코로나19 감염
⑧ 기타(구체적으로 :)

① 매우 악화될 것 ② 다소 악화될 것 ③ 다소 좋아질 것 ④ 매우 좋아질 것

J. 청년 1인가구 정책

J1. 귀하는 1인가구에 대한 부산시(구, 군)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은 편 ③ 필요한 편 ④ 매우 필요함

J2. 귀하는 다음 중 어떤 분야의 1인가구 지원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 지원정책(일자리, 금융지원 등)
 ② 주거 지원정책(맞춤형 주거, 안전 등)
 ③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정책(동호회, 공동체, 모임 지원)
 ④ 건강 지원정책(정신건강, 상담, 간호 등)
 ⑤ 기타()

J3. 다음에 제시된 각각의 1인가구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지원정책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기초 생활 보장	1)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2) 1인가구 자산형성 원사업(통장/카드사업)	①	②	③	④
	3) 고용연계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4) 스마트 돌봄서비스 지원	①	②	③	④
안전	5) 여성친화형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①	②	③	④
	6) 방범장비 설치 지원 사업 (문열림 센서, 보조키, 창문 안전장치 등)	①	②	③	④
	7) 여성 안심 어플 운영 사업	①	②	③	④
	8) 심야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①	②	③	④
	9) 취약지역 순찰강화	①	②	③	④
주거	10) 임대주택 공급(맞춤형, 부산드림아파트, 빈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 등)	①	②	③	④
	11) 부산청년 우리집 셰어하우스 운영	①	②	③	④
	12) 부산형 행복주택 건립	①	②	③	④
	13) 원스톱 주거복지 센터 설치·운영	①	②	③	④
	14) 주거비 지원(주거급여, 월세, 전세 보증금 지원 등)	①	②	③	④

- 15 -

2. 부산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 빈도표

〈1인가구 생활 기간〉

〈현재 주민등록상 1인가구 여부〉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 주민등록상 1인가구	647	64.7	• 1년 미만	99	9.9
• 주민등록상 1인가구 아님	353	35.3	• 1~2년 미만	257	25.7
			• 2~3년 미만	259	25.9
			• 3~4년 미만	191	19.1
			• 4년 이상	194	19.4

부
록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항목	빈도	%
• 학교/학원과의 거리 때문에	312	31.2
•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475	47.5
• 취업/진학/고시 등의 미래 준비 때문에	36	3.6
•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20	2.0
•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의 상황(이사, 해외이주, 결혼, 이혼, 사망 등) 때문에	20	2.0
• 개인적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	137	13.7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가족)와의 상태〉

항목	빈도	%
• 가족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음	270	27.0
• 가족으로부터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음	166	16.6
•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517	51.7
• 가족에게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41	4.1
• 가족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6	0.6

〈다인가구 대비 1인가구의 정책/제도/법적 불이익 혹은 혜택 정도〉

항목	빈도	%
• 매우 많은 불이익을 받음	22	2.2
•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음	278	27.8
• 다인가구와 차이 없음	630	63.0
•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음	70	7.0
• 매우 많은 혜택을 받음	0	0.0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

항목	빈도	%
• 식사 해결	381	38.1
• 문화체육생활	19	1.9
• 여행 등 여가활동	31	3.1
• 주거 관련 활동	105	10.5
• 가사 및 집안일 처리	158	15.8
• 응급상황 및 건강 관련 어려움	80	8.0
• 사회적 편견	7	0.7
• 일상생활 활동	62	6.2
• 불편한 점 없음	157	15.7

〈1인가구로서 가장 불안한 점〉

항목	빈도	%
• 경제적 불안감	261	26.1
• 안전에 대한 불안감	148	14.8
•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54	5.4
• 재원을 갖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	12	1.2
• 노후에 대한 염려	18	1.8
•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	171	17.1
• 사회적 소외에 대한 불안감	19	1.9
• 함께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한 걱정	30	3.0
• 불안한 점 없음	287	28.7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

항목	빈도	%
• 자유로운 삶 향유와 의사결정	433	43.3
• 나만을 위한 여가시간 활용	387	38.7
• 자유로운 연애편계	59	5.9
• 가족 부양·돌봄 부담 없음	28	2.8
• 일 또는 직장에서의 몰두	48	4.8
• 좋은 점 없음	45	4.5

〈앞으로 이루길 원하는 가구·거주 형태〉

항목	빈도	%
• 지금처럼 혼자	312	31.2
• 원래의 가족과 함께	196	19.6
• 원하는 상대와 결혼하여 함께	341	34.1
•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63	6.3
•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42	4.2
• 잘 모르겠음	46	4.6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항목	빈도	%
• 매우 불만족	1	0.1
• 불만족하는 편	50	5.0
• 만족하는 편	827	82.7
• 매우 만족	122	12.2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

항목	빈도	%
• 단독주택(일반, 다가구)	127	12.7
• 아파트(주상복합)	71	7.1
• 연립주택	125	12.5
• 다세대 주택	315	31.5
• 오피스텔	355	35.5
• 고시원	6	0.6
• 기숙사 및 사회시설	1	0.1

〈거주하고 있는 곳의 면적〉

항목	빈도	%
• 14㎡ 미만	17	1.7
• 14㎡ ~ 26㎡ 미만	292	29.2
• 26㎡ ~ 38㎡ 미만	361	36.1
• 38㎡ ~ 66㎡ 미만	272	27.2
• 66㎡ ~ 99㎡ 미만	52	5.2
• 99㎡ 이상	6	0.6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점유형태〉

항목	빈도	%
• 자가	28	2.8
• 전세	177	17.7
• 공공 임대주택	2	0.2
• 보증금 있는 월세	773	77.3
• 보증금 없는 월세·연세	15	1.5
• 무상	5	0.5

〈매월 지출되는 주거비 부담 정도〉

항목	빈도	%
• 매우 부담됨	192	24.3
• 약간 부담됨	484	61.3
• 별로 부담되지 않음	104	13.2
• 전혀 부담되지 않음	10	1.3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층〉

항목	빈도	%
• 지하	1	0.1
• 반지하	9	0.9
• 지상	989	98.9
• 옥상·옥탑	1	0.1

〈거주공간과 취사공간 분리 여부〉

항목	빈도	%
• 분리되어 있음	454	45.4
• 분리되어 있지 않음	546	54.6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

항목	빈도	%
• 매우 불만족	0	0.0
• 불만족하는 편	74	7.4
• 만족하는 편	841	84.1
• 매우 만족	85	8.5

〈현재 거주 주택 마련 방법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 (대출 없음)	327	32.7	219	41.6	546	35.8
• 금융기관 대출 (1금융권/2금융권 포함)	131	13.1	95	18.0	226	14.8
• 사금융 (3금융권)	2	0.2	3	0.6	5	0.3
• 직장 내 대출	7	0.7	14	2.7	21	1.4
• (매월 상환해야 하는) 부모나 친지, 형제·자매의 도움	42	4.2	31	5.9	73	4.8
• (상환하지 않는) 부모나 친지, 형제·자매의 도움	455	45.5	117	22.2	572	37.5
• (가족 이외의) 지인의 도움	35	3.5	48	9.1	83	5.4
• 기타	1	0.1	0	0.0	1	0.1

〈현 주거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항목	빈도	%
• 직장 또는 학교와 거리가 가까워서	702	70.2
• 비용이 저렴해서(경제적 여건 고려)	84	8.4
• 과거 거주 경험이 있는 지역이라서	31	3.1
• 부모·친지 등 가족과 거리가 가까워서	29	2.9
• 거주지의 치안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	28	2.8
• 교통이 편리해서	86	8.6
• 주거면적 및 주거환경이 좋아서	31	3.1
• 여가 및 교육시설, 의료시설이 가까워서	8	0.8
• 기타	1	0.1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항목	빈도	%
• 매우 불만족	0	0.0
• 불만족하는 편	92	9.2
• 만족하는 편	782	78.2
• 매우 만족	126	12.6

〈주택 및 주변 환경의 생활 안전도〉

항목	빈도	%
• 매우 불안함	0	0.0
• 약간 불안함	110	11.0
• 대체로 안전함	718	71.8
• 매우 안전함	172	17.2

〈현재 주거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	45	40.9	7	6.4	52	23.6
• 주택 관리인의 부재	11	10.0	24	21.8	35	15.9
• 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 존재	14	12.7	8	7.3	22	10.0
• 골목길, 주택 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	20	18.2	25	22.7	45	20.5
• 지하, 반지하, 저층 등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	3	2.7	11	10.0	14	6.4
• 남녀 공용주거로 인한 불안감	7	6.4	9	8.2	16	7.3
• 대중교통으로부터의 먼 거리	3	2.7	2	1.8	5	2.3
• 골목길 안전 시설물 부족(가로등, CCTV 등)	4	3.6	9	8.2	13	5.9
• 비상 시 대처하기가 어려움	3	2.7	15	13.6	18	8.2

부록

〈지난 일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근로활동 여부〉

항목	빈도	%
• 일을 하였음	732	73.2
• 휴가 및 일시 휴직	12	1.2
• 일을 하지 않았음	256	25.6

〈지난 한 달간 구직 시도 여부〉

항목	빈도	%
• 구직을 시도하였고, 일자리가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음	31	12.1
• 구직을 시도하였지만, 일자리가 주어졌더라도 일 을 시작할 수 없었음	10	3.9
• 구직을 시도하지 않았음	215	84.0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항목	빈도	%
• 일을 하고 싶지 않음	2	0.9
• 원하는 일자리가 없음	2	0.9
•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	1	0.5
• 가사 및 가족 돌봄으로 인해	1	0.5
• 학교 재학 및 학업을 수행 중	193	89.8
• 구직을 위한 준비 중	16	7.4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항목	빈도	%
• 상용직 근로자	524	70.4
• 임시직 근로자	129	17.3
• 일용직 근로자	38	5.1
•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11	1.5
•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42	5.6

〈현재 일자리 직종〉

항목	빈도	%
• 관리자	0	0.0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	1.3
• 사무 종사자	294	39.5
• 서비스 종사자	188	25.3
• 판매 종사자	173	23.3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	0.1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5	7.4
•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21	2.8
• 단순노무 종사자	2	0.3

〈현재 일자리 업종〉

항목	빈도	%
• 제조업	158	21.2
• 도매 및 소매업	203	27.3
• 숙박 및 음식점업	71	9.5
• 기타 개인서비스업	88	11.8
• 교육 서비스업	32	4.3
•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0.8
• 운수업	21	2.8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2	9.7
• 건설업	30	4.0
• 금융 및 보험업	44	5.9
•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5	0.7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13	1.7
• 기타	1	0.1

〈현재 직장 재직기간〉

항목	빈도	%
• 6개월 미만	50	6.7
• 6~12개월 미만	100	13.4
• 1~3년 미만	345	46.4
• 3~5년 미만	192	25.8
• 5~10년 미만	57	7.7
• 10년 이상	256	25.6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

항목	빈도	%
• 매우 불만족	2	0.3
• 불만족하는 편	116	15.6
• 만족하는 편	551	74.1
• 매우 만족	75	10.1

〈정기적으로 얻는 수입원〉

항목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 1) 근로 소득 (주된 일자리 및 아르바이트 포함)	744	74.4	256	25.6
• 2) 금융·임대 소득	13	1.3	987	98.7
• 3) 가족 지원 (용돈 등)	359	35.9	641	64.1
• 4) 정부 및 외부 지원금	39	3.9	961	96.1
• 5) 기타	0.0	0.0	1,000	100.0

〈월평균 소득금액〉

항목	빈도	%
• 50만원 미만	25	2.5
• 50~100만원 미만	176	17.6
• 100~150만원 미만	133	13.3
• 150~200만원 미만	99	9.9
• 200~250만원 미만	213	21.3
• 250~300만원 미만	190	19.0
• 300~350만원 미만	99	9.9
• 350~400만원 미만	46	4.6
• 400~450만원 미만	16	1.6
• 450~500만원 미만	3	0.3

〈월평균 생활비 지출금액 (저축 제외)〉

항목	빈도	%
• 50만원 미만	37	3.7
• 50~100만원 미만	344	34.4
• 100~150만원 미만	348	34.8
• 150~200만원 미만	159	15.9
• 200~250만원 미만	75	7.5
• 250~300만원 미만	34	3.4
• 300~350만원 미만	3	0.3

〈현재 부채(대출, 카드 연체 포함) 유무〉

항목	빈도	%
• 있다	265	26.5
• 없다	735	73.5

〈부채가 발생한 주된 원인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 내 집 마련	25	9.4	5	3.4	30	7.3
• 전·월세 보증금 마련	152	57.4	9	6.2	161	39.2
• 부동산·금융 투자자금 마련	6	2.3	16	11.0	22	5.4
• 사업자금(창업) 마련	8	3.0	5	3.4	13	3.2
• 학자금·교육비 마련	27	10.2	7	4.8	34	8.3
• 결혼자금 마련	0	0.0	1	0.7	1	0.2
• 의료비 마련	1	0.4	1	0.7	2	0.5
• 생활비 마련	13	4.9	48	32.9	61	14.8
•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33	12.5	54	37.0	87	21.2

〈3년 뒤, 응답자가 예상하는 생활수준〉

〈현재 전반적인 생활수준〉

항목	빈도	%
• 하층	382	38.2
• 중층	537	53.7
• 상층	81	8.1

항목	빈도	%
• 매우 나빠질 것	0	0.0
• 다소 나빠질 것	17	1.7
• 변화 없을 것	312	31.2
• 다소 좋아질 것	580	58.0
• 매우 좋아질 것	91	9.1

〈현재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건강상태〉

항목	빈도	%
• 전혀 건강하지 않음	0	0.0
• 별로 건강하지 않음	11	1.1
• 대체로 건강함	515	51.5
• 매우 건강함	474	47.4

〈현재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 건강상태〉

항목	빈도	%
• 전혀 건강하지 않음	1	0.1
• 별로 건강하지 않음	19	1.9
• 대체로 건강함	483	48.3
• 매우 건강함	497	49.7

〈평소 식생활〉

항목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1) 같이 식사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노력함	(빈도) %	(348) 34.8	(459) 45.9	(180) 18.0
• 2)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위해 노력함	(빈도) %	(118) 11.8	(381) 38.1	(425) 42.5
• 3) 하루에 한 번 이상 끼니를 거르곤 함	(빈도) %	(51) 5.1	(280) 28.0	(451) 45.1
• 4) 간편식 및 반조리 식품 (라면, 인스턴트 식품, 레스토랑 식품 등)을 이용함	(빈도) %	(17) 1.7	(154) 15.4	(535) 53.5
• 5) 원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 함	(빈도) %	(141) 14.1	(427) 42.7	(364) 36.4
• 6) 반찬가게 등에서 조리된 음식을 구매함	(빈도) %	(39) 3.9	(222) 22.2	(548) 54.8
• 7) 배달 음식을 구매함	(빈도) %	(7) 0.7	(124) 12.4	(595) 59.5

〈평소 운동 주기〉

항목	빈도	%
• 전혀 안 함	278	27.8
• 3개월에 1~2회	24	2.4
• 한 달에 1~2회	131	13.1
• 일주일에 1~2회	308	30.8
• 일주일에 3~4회	203	20.3
• 거의 매일	56	5.6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고민 유무〉

항목	빈도	%
• 예	10	1.0
• 아니오	990	99.0

〈감정 느낌 주기〉

항목		5점 척도				
		전혀 느끼지 않음	아주 가끔 느낌 (월 1~2회)	가끔 느낌 (주 1~2회)	자주 느낌 (주 3~4회)	매일 느낌
• 1) 외로움	(빈도)	(481)	(381)	(127)	(8)	(3)
	%	48.1	38.1	12.7	0.8	0.3
• 2) 불안함	(빈도)	(653)	(289)	(52)	(5)	(1)
	%	65.3	28.9	5.2	0.5	0.1
• 3) 우울함	(빈도)	(737)	(208)	(44)	(10)	(1)
	%	73.7	20.8	4.4	1.0	0.1

부록

〈여가를 보내는 주 동반자 유형〉

항목	빈도	%
• 혼자서	283	28.3
•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42	4.2
•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592	59.2
• 직장동료	64	6.4
•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19	1.9

〈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항목	빈도	%
• 매우 부족함	25	2.5
• 부족한 편	302	30.2
• 충분한 편	647	64.7
• 매우 충분함	26	2.6

〈주 여가활동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 TV/비디오 시청	293	29.3	183	18.4	476	23.9
• 운동(자전거, 등산 등)/헬스	146	14.6	104	10.5	250	12.5
• 독서/신문/잡지보기	32	3.2	73	7.3	105	5.3
• 컴퓨터/게임	233	23.3	243	24.4	476	23.9
• 산책/나들이/여행	140	14.0	187	18.8	327	16.4
• 문화관련 취미활동(댄스, 그림 등)	41	4.1	74	7.4	115	5.8
• 학습활동	53	5.3	33	3.3	86	4.3
• 종교활동	9	0.9	9	0.9	18	0.9
• 문화관람(영화, 연극, 미술관 등)	52	5.2	87	8.7	139	7.0
• 봉사활동	1	0.1	2	0.2	3	0.2

〈여가활동을 하는 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

항목	빈도	%
• 일이 너무 바쁨	157	15.7
• 경제적 부담	461	46.1
• 적당한 여가 프로그램이 없음	159	15.9
• 적당한 여가 시설이나 장소가 없음	163	16.3
• 함께할 친구가 없음	15	1.5
• 여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함	43	4.3
• 기타	2	0.2

〈다른 1인가구와의 정보교류 필요성〉

항목	빈도	%
• 전혀 필요하지 않음	33	3.3
• 필요하지 않은 편	190	19.0
• 필요한 편	682	68.2
• 매우 필요함	95	9.5

〈1인가구 구성 이전 대비
현재의 사회적 관계 변화 정도〉

항목	빈도	%
• 많은 관계가 축소/단절	12	1.2
• 약간 관계가 축소/단절	205	20.5
• 변화 없음	611	61.1
• 약간 관계가 증가	155	15.5
• 많은 관계가 증가	17	1.7

〈반려동물 동거 여부〉

항목	빈도	%
• 그렇다	116	11.6
• 아니다	884	88.4

〈반려동물을 키울 의사 여부〉

항목	빈도	%
• 그렇다	192	21.7
• 아니다	692	78.3

〈지난 1년 간 모임 및 단체 참여 정도〉

항목		4점 척도			
		전혀 가 지 않음	연 1~2회	월 1회 이상	주 1회 이상
• 1) 자원봉사활동	(빈도) %	(882) 88.2	(94) 9.4	(23) 2.3	(1) 0.1
• 2) 종교모임활동	(빈도) %	(893) 89.3	(39) 3.9	(38) 3.8	(30) 3.0
• 3) 교육모임활동 (자기계발, 스터디 그룹 등)	(빈도) %	(767) 76.7	(78) 7.8	(105) 10.5	(50) 5.0
• 4) 운동모임활동	(빈도) %	(746) 74.6	(107) 10.7	(121) 12.1	(26) 2.6
• 5) 문화모임활동 (독서모임, 예술동호회 등)	(빈도) %	(829) 82.9	(103) 10.3	(66) 6.6	(2) 0.2
• 6) 사회단체활동 (환경, 인권단체 등)	(빈도) %	(948) 94.8	(40) 4.0	(12) 1.2	(0) 0.0
• 7) 지역단체활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협동조합 등)	(빈도) %	(937) 93.7	(55) 5.5	(8) 0.8	(0) 0.0

〈상황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지인〉

항목			없다	1~2 명	3~4 명	5~9 명	10명 이상
•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가족/친척	(빈도) %	(44) 4.4	(661) 66.1	(274) 27.4	(21) 2.1	(0) 0.0
	• 친구·이웃· 직장동료	(빈도) %	(274) 27.4	(469) 46.9	(238) 23.8	(19) 1.9	(0) 0.0
•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 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가족/친척	(빈도) %	(40) 4.0	(639) 63.9	(289) 28.9	(30) 3.0	(2) 0.2
	• 친구·이웃· 직장동료	(빈도) %	(165) 16.5	(533) 53.3	(251) 25.1	(48) 4.8	(3) 0.3
•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 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 가족/친척	(빈도) %	(111) 11.1	(563) 56.3	(249) 24.9	(67) 6.7	(10) 1.0
	• 친구·이웃· 직장동료	(빈도) %	(42) 4.2	(333) 33.3	(438) 43.8	(165) 16.5	(22) 2.2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주된 이유〉

항목	빈도	%
• 시간적 부담	48	25.0
• 경제적 부담	65	33.9
• 주거지에서 사육이 불가능함	17	8.9
• 위생문제(배변, 털날림 등)	33	17.2
• 안전 문제에 대한 부담	15	7.8
• 이별에 대한 두려움	4	2.1
• 장시간 부재 시 돌봄이 어려움	9	4.7
• 기타	1	0.5

〈반려동물이 1인가구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항목	빈도	%
• 전혀 그렇지 않다	29	2.9
•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8	16.8
• 그런 편이다	673	67.3
• 매우 그렇다	130	13.0

〈다인가구 대비 1인가구의 범죄 노출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정도〉

항목	빈도	%
• 전혀 그렇지 않다	52	5.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3	20.3
• 그런 편이다	664	66.4
• 매우 그렇다	81	8.1

〈결혼에 대한 생각〉

항목	빈도	%
•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1	2.1
• 안해도 상관없다	387	38.7
• 하는 편이 좋다	542	54.2
• 반드시 해야한다	50	5.0

〈안전 체감 정도〉

항목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1) 내가 사는 집은 혼자 살기에 안전하다	(빈도) %	(2) 0.2	(129) 12.9	(686) 68.6	(183) 18.3
• 2) 내가 사는 지역(동네)은 혼자 살기에 안전하다	(빈도) %	(1) 0.1	(137) 13.7	(561) 56.1	(301) 30.1
• 3) 주거지역 선택 시 안전한 지역인지 확인한다	(빈도) %	(8) 0.8	(143) 14.3	(523) 52.3	(326) 32.6
• 4) 내가 사는 지역은 경찰의 방범 활동이 활발하다	(빈도) %	(5) 0.5	(213) 21.3	(508) 50.8	(274) 27.4
• 5) 내가 사는 지역은 골목길에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빈도) %	(5) 0.5	(160) 16.0	(593) 59.3	(242) 24.2
• 6) 내가 사는 지역은 골목길에 가로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빈도) %	(3) 0.3	(142) 14.2	(656) 65.6	(199) 19.9
• 7) 나는 위험 발생 시 대처요령을 잘 알고 있다	(빈도) %	(18) 1.8	(144) 14.4	(716) 71.6	(122) 12.2

〈범죄에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 집 안	59	5.9	26	2.6	85	4.3
• 주거지 내부 계단 등 은폐장소	283	28.3	174	17.4	457	22.9
• 주차장-주거지 이동공간	213	21.3	168	16.8	381	19.1
• 대중교통-주거지 이동공간	92	9.2	138	13.8	230	11.5
• 유흥가 밀집지역	160	16.0	164	16.4	324	16.2
• 공중화장실	56	5.6	113	11.3	169	8.5
• 지하주차장	74	7.4	84	8.4	158	7.9
• 엘리베이터 내부	17	1.7	33	3.3	50	2.5
• 공원, 산책로	45	4.5	91	9.1	136	6.8
• 대중교통 수단 내부	1	0.1	8	0.8	9	0.5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생각〉			〈현재 기혼 여부〉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 없는 것이 좋다	27	2.7	• 예	6	0.6
• 없어도 무관하다	392	39.2	• 아니오	994	99.4
• 있는 것이 좋다	522	52.2	〈앞으로 결혼할 생각의 유무〉		
• 꼭 있어야 한다	59	5.9	항목	빈도	%
			• 예	579	58.2
			• 아니오	199	20.0
			• 모르겠음	216	21.7

〈결혼을 계획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 경제적 어려움	57	28.6	24	12.7	81	20.9
•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함	39	19.6	47	24.9	86	22.2
• 직업의 불안정	5	2.5	32	16.9	37	9.5
• 출산/자녀양육의 부담	42	21.1	27	14.3	69	17.8
• 결혼 후 거주지 마련이 어려움	12	6.0	18	9.5	30	7.7
•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7	3.5	8	4.2	15	3.9
• 결혼보다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7	3.5	12	6.3	19	4.9
• 결혼할 생각이 없음(비혼주의)	14	7.0	12	6.3	26	6.7
• 아직 결혼을 하기엔 이른 나이임	13	6.5	6	3.2	19	4.9
•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해(교육, 입시, 고시준비 등)	2	1.0	3	1.6	5	1.3
• 기타	1	0.5	0	0.0	1	0.3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근로 상황 변화 예측〉

항목	빈도	%
• 매우 악화될 것	0	0.0
• 다소 악화될 것	107	10.7
• 다소 좋아질 것	817	81.7
• 매우 좋아질 것	76	7.6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문화·여가 생활 변화 정도〉

항목	빈도	%
• 전혀 못하고 있음	226	22.6
• 소극적으로 하고 있음	638	63.8
• 코로나와 관계없이 하고 있음	104	10.4
• 코로나 이후 더욱 많이 하고 있음	32	3.2

〈2020년 이전 대비, 코로나19 시기동안 고용상태 및 변화 (다중응답)〉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 임금근로자	678	67.8	• 임금증가	62	8.9
			• 임금감소	126	18.0
			• 원치 않는 무급휴직	44	6.3
			• 해고	7	1.0
			• 변화 없음	461	65.9
• 자영업자	53	5.3	• 매출증가	1	1.6
			• 매출감소	43	70.5
			• 영업시간 단축/휴업	12	19.7
			• 폐업	0	0.0
			• 변화 없음	5	8.2
• 실업자·비취업자	21	2.1	• 실업기간 연장(구직어려움)	8	38.1
			• 변화 없음	13	61.9
• 해당없음	248	24.8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문화·여가 생활 변화 예측〉

항목	빈도	%
• 매우 줄어들 것	1	0.1
• 다소 줄어들 것	101	10.1
• 다소 활발해질 것	753	75.3
• 매우 활발해질 것	145	14.5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사회적 관계 변화 정도〉

항목	빈도	%
• 매우 많이 단절됨	58	5.8
• 다소 단절됨	418	41.8
• 다소 늘어남	403	40.3
• 매우 늘어남	121	12.1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회적 관계 변화 예측〉

항목	빈도	%
• 매우 많이 단절될 것	0	0.0
• 다소 단절될 것	121	12.1
• 다소 늘어날 것	747	74.7
• 매우 늘어날 것	132	13.2

〈과거와 비교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우울감 경험 유무〉

항목	빈도	%
• 예	368	36.8
• 아니오	632	63.2

〈코로나 19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주요 원인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	88	23.9	19	5.2	107	14.5
•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	101	27.4	126	34.2	227	30.8
• 빈번히 올리는 긴급재난문자	54	14.7	51	13.9	105	14.3
•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	51	13.9	76	20.7	127	17.3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계단절 및 소통감소	52	14.1	64	17.4	116	15.8
• 소득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	16	4.3	18	4.9	34	4.6
• 가족/친구/지인의 코로나19 감염	6	1.6	14	3.8	20	2.7

부
록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삶 변화 예측〉

항목	빈도	%
• 매우 악화될 것	0	0.0
• 다소 악화될 것	41	4.1
• 다소 좋아질 것	813	81.3
• 매우 좋아질 것	146	14.6

〈1인가구에 대한 부산시(구, 군)의 지원정책 필요성〉

항목	빈도	%
• 전혀 필요하지 않음	3	0.3
• 필요하지 않은 편	49	4.9
• 필요한 편	649	64.9
• 매우 필요함	299	29.9

〈1인가구 지원정책 중 가장 필요한 분야〉

항목	빈도	%
• 경제 지원정책	435	43.5
• 주거 지원정책	499	49.9
•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정책	47	4.7
• 건강 지원정책	19	1.9

〈1인가구 지원 정책 필요성〉

항목			4점 척도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기초 생활 보장	• 1)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빈도) %	(13) 1.3	(67) 6.7	(599) 59.9	(321) 32.1
	• 2) 1인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통장/카드사업)	(빈도) %	(17) 1.7	(122) 12.2	(446) 44.6	(415) 41.5
	• 3) 고용연계 지원 사업	(빈도) %	(4) 0.4	(95) 9.5	(419) 41.9	(482) 48.2
	• 4) 스마트 돌봄서비스 지원	(빈도) %	(19) 1.9	(183) 18.3	(471) 47.1	(327) 32.7
안전	• 5) 여성친화형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빈도) %	(24) 2.4	(154) 15.4	(462) 46.2	(360) 36.0
	• 6) 방범장비 설치 지원 사업 (문열림 센서, 보조키, 창문 안전장치 등)	(빈도) %	(15) 1.5	(130) 13.0	(492) 49.2	(363) 36.3
	• 7) 여성 안심 어플 운영 사업	(빈도) %	(10) 1.0	(124) 12.4	(514) 51.4	(352) 35.2
	• 8) 심야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빈도) %	(9) 0.9	(134) 13.4	(526) 52.6	(331) 33.1
	• 9) 취약지역 순찰강화	(빈도) %	(2) 0.2	(105) 10.5	(462) 46.2	(431) 43.1
주거	• 10) 임대주택 공급(맞춤형, 부산드림아파트, 빈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 등)	(빈도) %	(37) 3.7	(139) 13.9	(430) 43.0	(394) 39.4
	• 11) 부산 청년 우리집 세어하우스 운영	(빈도) %	(26) 2.6	(154) 15.4	(449) 44.9	(371) 37.1
	• 12) 부산형 행복주택 건립	(빈도) %	(7) 0.7	(122) 12.2	(488) 48.8	(383) 38.3
	• 13) 원스톱 주거복지 센터 설치·운영	(빈도) %	(9) 0.9	(118) 11.8	(573) 57.3	(300) 30.0
	• 14) 주거비 지원(주거급여, 월세, 전세 보증금 지원 등)	(빈도) %	(2) 0.2	(67) 6.7	(526) 52.6	(405) 40.5
생활 및 건강	• 15)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빈도) %	(2) 0.2	(121) 12.1	(628) 62.8	(249) 24.9
	• 16) 사회진입 예정자 대상 독립생활 준비교육	(빈도) %	(9) 0.9	(174) 17.4	(499) 49.9	(318) 31.8
	• 17) 신체건강 지원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등)	(빈도) %	(5) 0.5	(163) 16.3	(515) 51.5	(317) 31.7

항목			4점 척도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 18) 정신건강 지원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	(빈도)	(6)	(182)	(502)	(310)	
	%	0.6	18.2	50.2	31.0	
• 19)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빈도)	(4)	(167)	(568)	(261)	
	%	0.4	16.7	56.8	26.1	
• 20) 고독사 예방사업	(빈도)	(24)	(156)	(568)	(252)	
	%	2.4	15.6	56.8	25.2	
• 21)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빈도)	(48)	(212)	(555)	(185)	
	%	4.8	21.2	55.5	18.5	

정책연구 2022-11-043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방안

저 자 김세현, 김민경, 이가현

발행인 신현석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처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우)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F

☎ (051)860-8850, FAX (051)860-8619

홈페이지 <http://www.bdi.re.kr>

ISBN 979-11-6886-043-8 9333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